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추리 자문회의 지변화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잠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십주경〉

법회 안내

석불사 (02)712-1765
직장인법회 1 · 3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0시

혜진선원 (032)693-3326
초하무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장근본법회 매주 화 · 금 · 토

인천 영덕사 (032)502-2836
지장법회 매월 15일(음)

예천 포교원 (0584)654-678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가장해동용궁사(0523)362-774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덕명사 (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 · 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1 · 3 주 일 오후4시

법림사 (062)234-2207
산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마하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천명사 (062)234-6203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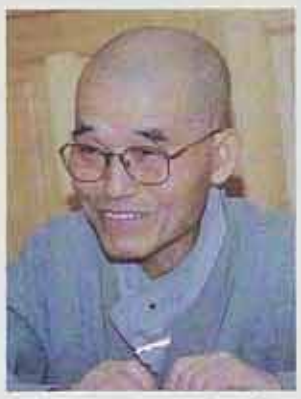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이런때 크게 깨우치는 거야"

혜암 · 승찬스님 盧씨에 일갈

그 산에 그 절이 있고, 그 절을 가면 언제나 가르침이 있다. 큰 스님이 아니 계시면 허다못해 물 소리 산새 소리가 시자후를 대신한다.

노태우씨 사건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요즈음 그 절에 계신 큰 스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아니, 무어라 일갈을 하실까. 해인총림의 혜암 방장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과 조계총림의 승찬 방장스님을 찾아 한 말씀 청했다. 〈편집자 주〉



혜 암 (해인총림 방장)



승 찬 (조계총림 방장)

"산덩이 만한 실패 뒤엔 산덩이 만한 성공 있는 법 저승까지 죄업 안가져 가니 盧씨에겐 차라리 행운이지"

"이미 열려있는 바른 길을 가지 않음은 누구 책임인가 부처님께서 인간의 도리를 누누히 강조하셨잖는가"

–큰스님, 이 난감한 시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온통 난리들이지. 모두들 도둑놈 거느리고 살면서 말이야. 공부는 이런때 하는거야. (스님께서는 담신의 팔등을 고집어 보이시면서 빙그레 웃으신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 전대통령이 요즘 전국민에게 큰 공부시키고 있는거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느 한 면만 보면 안되지.

내 말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노 전대통령은 지금 멋진 연극 한마당 벌이고 있는 거야. 안그런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안생기겠지.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난 늘 강조하는데 주먹만한 실패 뒤엔 주먹만한 성취가 있고 산덩어리만한 실패 뒤엔 산덩어리만한 성공이 있는 법. 세상엔 고정된게 없어요.

지금의 노씨 문제 또한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번엔 달라야지. 이런 때 크게 깨우치는 거야.

–예, 스님. 너무나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조금은 알 것 같애? 그래서 미혹한 내 마음을 벗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그 마음을 '진심'이라고도 하고 본성,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본심을 잃어버린 때문이야.

노 전대통령 또한 이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지. 본래 마음으로야 그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애.

하지만 노씨에게 이번 일은 행운이야. 그 죄업을 저승까지 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 끔찍한 일이지.

–스님, 이런때 재가불자들은 뭘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말씀 주십시요.

▲모든 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야. 자작자수(自作自受)지. 이걸 꼭 알아야 돼. 인연법에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어. 거듭 강조하지만 큰 성취는 수미산만큼 큰 실패 뒤에 오는 거야. 누구나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났다는 식이면 될 일도 안돼. 이 기회를 본래 마음자리 찾는 일에 써야지.

본심을 잃으면 어둠만이 계속될 뿐이야.

해인사=윤체학 차장

–전직 대통령이 옳지 못한 재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수감되는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매우 큽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야 산중에 사는 사람이니 이 어지러운 상황을 잘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부처님께서 참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중생들의 삶이 자꾸자꾸 죄업을 짊어가는 것이라고 봐야겠지. 이미 열려 있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처님께서는 계·정·혜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것을 누누히 강조하셨잖는가. 인간다운 삶의 틀이 되는 계행(5계)을 어긋남이 없이 지키고 자신의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가를 살피면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 도리를 잊지 않는 것이 망념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大慈悲心正直行(대통령수정도량)
一念不差不偏邪(일호불차불변벽)
天堂地獄鬼神祭(천당지옥귀신숭)
南北東西無門開(남북동서무비문)
대통령이 바른길을 가면
터럭 끝만한 차질도 없어
천당과 지옥의 귀신이 숭배하네
사방에 문이 아닌곳 없도다.

이 소식을 알면 이 땅은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겠지.

승광사=임연태 차장

"토지관련 세금 면제" 촉구

조계종 종회 對정부 결의문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정부 및 집권당은 불교계에 공약한 종토세및 토지 관련 세법을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 불교계 토지관련 세금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제119회 종회에서 의원스님들은 만장일치로 '종합토지세 문제해결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도량이 각종 세법으로 인해 유실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불교계에 대한 기만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스님들은 "정부와 집권당이 공약한 종토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백만 불자 서명 확산및 산문폐쇄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2면〉

한편 이날 종회는 중앙종회법 제69조(의결정족수)를 '… 다만 종법안의 의결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예산회계법 총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승가대 이전을 위한 교육특별분담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종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성타스님(불국사 부주지)을 찬성 34표 반대 9표로 포교원장에 선출했다. (인터뷰 7면)

조계종 내년예산 103억여원

종책사업 21%…강사양성비 3억6천만원 신설

조계종 예산이 1백억원을 넘어섰다.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17일 95년보다 56.5% 늘어난 예산 1백3억3천34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분담금 수입은 95년보다 18억834만원이 늘어난 65억9천8백34만원, 작영사찰 수입은 160% 증액된 30억원이 계상됐다.

사업별 예산 배정을 보면 역경 도제양성 포교등 종단의 3대사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책 사업에 22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종단종합전산망 구성 추진 5천만원 △총무행정개선 1천만원 △종책사업 지원비 8억8천만원(불교방송 3억3천만원, 불교TV 5천만원, 나눔의 집 7천만원, 사회복지재단 3억, 복지사업단체보조 5천만원, 불교신문 5천만원)등 이다.

또한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 지정과 관련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1억9천6백50만원, 신도회 사업을 위한 1억원의 비용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지방승가대 보조비 2억원,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3억6천만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등국역경원 지원비 1억원, 대장경연구소 지원 7천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내년부터 독립운영재산제로 된 중앙종회는 운영비로 3억6천2백38만8천원을 배정받았다.

청사건립비 10억원 책정

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에 청사건립비 10억원을 책정, 향후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각 부서 사무실과 회관, 소임자 스님들의 요사로 쓰이고 있는 현 건물은 지난 1975년 완공돼 총무원 청사로 쓰여왔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균열이 보여 최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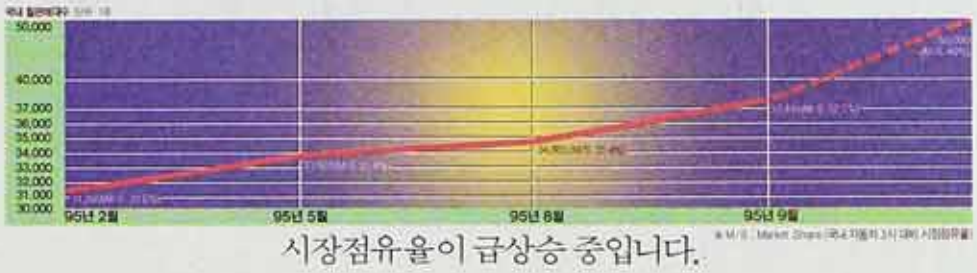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 주변 땅을 매입해 향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을 내비쳤다.

산문밖의 禪 – 조훈현國手 5면
'고속철 우회노선' 국회청원 14면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랠리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

사 설

인사권 남용 파행 복지행정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구청들로부터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인사권개입 등 부당행위로 복지행정이 비틀거리는가 하면, 위탁운영권을 가진 불교계의 책임감과 인식부족으로 파행운영되는 경우도 돌출해 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동작구청은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본동복지관에 퇴직공무원을 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재계약을 미뤄오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인사권남용 사례이다.

관악구청도 지난 10월 관악청소년회관의 위탁운영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경험이 전혀없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를 선정함으로써 선정자율권 남용이라는 서울시의 시정통보를 받은바 있다.

한편 이번에는 이러한 시정통보까지 냈던 서울시가 스스로 부당한 행정조치를 자행하여 불교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가 지난 6월부터 위탁운영하던 가양4 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권 반납조치와 함께 새 위탁법인 모집 광고를 일간지에 냈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사회복지회가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재위탁'이라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이를 곧바로 시정하여 복지관운영에 정상화를 기한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자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새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월권 행정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행정의 파행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권위주의적 병폐적 관료주의라는 군사문화적 폐습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며 머슴이라는 공무원의 공복의식은 간 곳 없고 오직 행정편의에 따른 횡포가 도처에서 발견될 뿐이다.

지금 우리는 드라마같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 군사문화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문민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윤리의식·책임의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역사적 현장 속에 앞에서 본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구청의 구태의연한 불편·부당한 간섭, 월권행위 등의 행정이 자행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복지관운영권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불교계의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지적하고저 한다.

첫째, 복지관위탁업무를 맡고있는 서울시와 그 산하 구청의 이번 불편·부당한 행정조치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공무집행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행정관청의 기구축소로 인하여 관장자격이 없는 퇴직공무원을 무리하게 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재계약 거부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이며 주민들과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특히 본동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복지관이었으나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이 막대한 전입금을 투입하여 어느정도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다. 전직원이 부처님의 자비·보은사상에 바탕을 두고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러한 공덕의 기득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당해 관청은 복지행정이 단순한 행정지시나 권력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지원체계의 수립을 촉구한다.

둘째, 불교계는 자비·보은사상에 입각한 사회복지불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등 인재를 기르는 불사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따라 깨달음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불사임을 인식하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당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바람타고 살며시…

열린마당

사찰 종토세

종토세·토초세로 사찰에 비상이 걸렸다.

교계는 종토세 면제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내무부는 김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자당 역시 세율을 대폭 낮추는 당정안을 마련했으나 교계는 세율인하보다도 사찰토지에 대한 근본인식을 달리해 합리적 조세행정을 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사찰 종토세·토초세에 대한 현황과 교계의 대응방침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전통사찰 부동산 '경내지' 인정돼야
가상이득에 과세 합리성상실 처사

현 응 〈조계종 기획실장〉



조세는 모두에 대하여 공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종교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세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겠으나 조세 제도가 합리성을 상실하였다면 마땅히 시정과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문제가 있다.

전통사찰의 경우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액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찰이 많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부동산은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지 전체로 보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유지 보존하고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이고, 그 처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므로 경내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는 옳지 않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경우 그 상승부분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런데 토지 가격 상승은 토지의 교환가치를 높이지만 사용가치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토지 거래가 없다면 지가 상승은 잠재적 수익가능성일 뿐 현실화되지 않은 가상이득이다. 가상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토지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과된 세금 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며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오히려 순수한 토지 사용자의 토지 처분을 종용하게 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초세는 종단뿐만 아니라 국민적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일부 위헌 관결을 받은 바 있고 나머지 부분도 위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단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토초세의 면세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종단 내부로 볼 때는 시내에 있는 유휴지를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 용도의 건물을 짓거나 공익 시설을 유치하는 등 유휴지 활용 방안과 종단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계 종토세·토초세 현황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 스님까지 종토세 면제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사찰의 종토세·토초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조계종에서 잠정 집계하고 있는 종토세 부과액은 년 5억여원 정도. 지금까지 누적돼온 토지관련세금은 총 8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에서는 토지 일부는 법원의 압류후 경매처분됐다. 통도사는 현재 이의 신청 준비중에 있으나 기각되면 다시 정식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범어사는 종토세도 문제이거니와 택지초과보유세 30억원이 부과돼 있어 현재 부산고법에 행정소송중이다. 소송에서 괘소하면 체납액을 현물로라도 납부할 수 밖에 없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신흥사 역시 지난 10월 속초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

한편 내무부가 다른 비영리법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종교단체토지 전면 비과세에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자당은 내년부터 0.3% 단일세율 (농지 임야는 0.1%)로 종토세를 분리 과세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사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교계는 세율의 대폭 경감이라는 이번 당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전통사찰의 토지는,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종토세나 토초세의 과세 목적과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1960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 종토세 등 관련 세금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각 사찰의 토지세 부과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년말까지 정부에 제출, 관련 세법개정을 꾸준히 요청할 계획이며 만일 무위로 돌아갈 경우 산문폐쇄, 총선·대선에서의 반 민자운동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숙〉

전국사찰 행정소송·압류경매 등 누적세 '몸살'
과세자료 정부제출 개정 요청…강력 대응키로

현황파악을 위해 종토·토초세 부과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월정사 2억 2천만원 고운사 2천4 만원 신흥사 1억5천4백만원 등이다.

통도사가 누진액까지 3억6천4백여만원, 범어사 7억1천6백여만원. 통도사는 양산읍에 4필지가 가압류상태에 있고 산하 말사인 울산 월봉사의

시 론

새시대 여는 '천재일우' 삼자

근대국가를 지향한지 50여년, 물량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를 맴도는 교역량을 자랑하듯이 절대빈곤의 시절이 언제였던가 할 정도로 우리는 풍요의 포만감에 젖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의 저변에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마음'이 깔려있다.

끝없는 재화의 축적을 향해 萬人은 萬人을 착취와 기만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아귀다툼을 벌여오기 수십년,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가공할 부정축재가 노출되어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태우씨와 그 친인척 모두를 발본색원하여 엄단함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지난 십수년간 지속된 全·盧 일당의 파행적 정치구조와 이에 편승한 구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1960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군부독재정치의 정통성을 말살시키고 차제에 文民정치의 역사성을 부각시켜 제2의 건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삼 대통령의 향후 일거수 일투족에 세인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노태우 파문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지난 50여년 지속되어온 한국적 정신병리를 모두 담고 있기에 一喜一悲의 단기 처방책으로는 오히려 민족과 역사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공 성 진
〈한양대 교수·한백연구재단 소장〉

그간 크고작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수많은 전문가와 志士들이 일갈하였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우리 모두는 눈이 아프게 보아왔지 않은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처방

그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진단과 처방때문이다. 전체를 통찰하려 하지 않고 자기류의 편견과 아집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습하려한 결과 질타는 난무하되 반성은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들 처방책의 근저에는 예의없이 농경 전제시대의 가치가 스며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근대국가에서의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성찰해보자. 국가원수, 혹은 행정수반이란 어휘가 낯설지 않을 만큼 국정수반의 최고 책임자임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란 국민주권의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듯이 국가의 최고위 관리자인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 존재이다. 즉 국가의 최고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잠시 직무기간동안 이를 위탁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국가의 평범한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릇된 마음속 신화깨기

지난 전제군주시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과 도덕성을 갖춘 절대적 인격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에게 대통령은 군주요 스스로는 신민이라는 착각이 그럴듯한 사실로 포장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토양 속에서 권력을 잠시 위탁받은 대통령이 절대성과 영속성의 환상을 떨쳐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역사 속에 명멸했던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는 신화와 현실간의 괴리와 충돌의 산물이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속죄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태우 파문은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하던 신화의 완전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구시대의 종말과 신지평의 출현을 합의하는 권력이동의 전기를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시대적 격변기에 휘말려 있다. 제3의 물결이나 후천개벽의 신질서가 시시각각 신인류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은 신화의 사슬에서 벗어나 지의식이 충만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뇌화부동의 폭풍같은 열정이 아니라 평상심의 냉엄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화가 벗겨진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각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노태우씨나 다른 정치지도자들이 보통사람과 다름없다는 이 위대한 발견을 위해 건국이후 지난 50년의 세월,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어지러이 표류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태우 파문의 여파가 정치권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학계, 종교계,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부문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신화가 이일을 계기로 일파만파 그 파열음을 내게될 것이 자명하다. 그 깨어짐을 두려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음을 아쉬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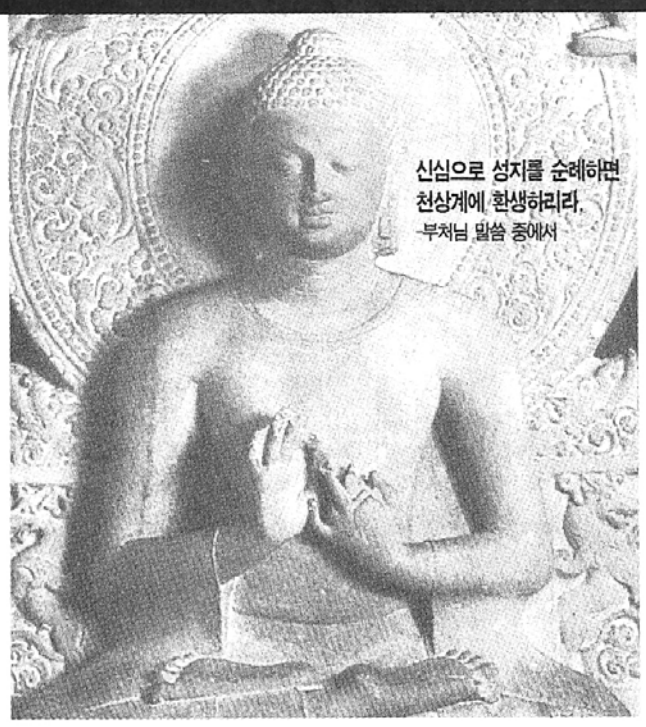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은 광안의 낡은 각질속에 안주하기 보다는 소용돌이 가운데서 새로운 지평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태우씨가 그 불길을 지폈다.

KAL WORLD TOUR KAL 월드투어 '95. 10. 1~'96. 2. 12 인도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

"인도 불교성지 순례 — 깨달음의 시간에 KAL 월드투어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향기가 서린 땅 -
그 위대한 성지를 순례하고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전에서
성도절 특별법회에 참가하는 감격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울-델리 대한항공 전세기 운항
1차 '96. 1. 24~2. 3(10박 11일)
2차 '96. 2. 2~2. 12(10박 11일)

인·도·전·세·기·성·지·순·례·일·정 ₩1,420,000
• 정부인가 조간입

1/24	1	서울	1/30	7	쿠시나가르
2/2		델리	2/8		발람푸르
1/25	2	알라하바드	1/31	8	발람푸르
2/3		바라나시	2/9		럭나우
1/26	3	바라나시	2/1	9	델리
2/4		부다가야	2/10		델리
1/27	4	부다가야	2/2	10	델리
2/5		부다가야	2/11		델리
1/28	5	부다가야	2/3	11	델리
2/6		파트나	2/12		서울
1/29	6	파트나			
2/7		쿠시나가르			

• 1급 Hotel2인1실 기준
• US$요금(인도, 네팔₩31,000불도
• 성청금₩100,000-현일은행 009-03-011006(예금주 (주)한진관광(급 Hotel2인1실 기준

精誠을 다하는 旅行의 名門
韓進觀光
서울 특별시 중구 봉래동132-4
미래로 길을여는- 예약 726-5750
상담 726-5771~7 (임재영과장/김석준)

지점 및 영업소
• 부산 463-2115
• 전주 745-3070~3
• 대구 426-6706~8
• 광주 228-0041~2
• 대전 252-2034~5
• 제주 42-7217
• 팔레스호텔 536-0368~9
• 가든호텔 718-3140~1
• 서울르네상스호텔 566-1768
• 리츠칼튼 3453-3489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한국·일본 자동차 소음 세계적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㉞

부처님 당시 수행승들은 아란야처에 주로 명상을 즐겼는데, 그곳은 마을이나 번잡한 곳에서 떨어진 한정처(閑靜處)였다. 거기에는 나무나 숲이 있어 소음이 발생해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갖가지 교통수단과 산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 종일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도심은 물론이고 산골짜기까지도 경운기 소리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하는 판국이 되었다.

사소하게는 사무실의 타자기, 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텔레타이프 등에서 나는 일상 업무시의 소음을 비롯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산업시설의 소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음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공해로 등장하고 있다.

소음공해

교통소음, 혈압 상승·성호르몬 감소 유발
소음허가업소 17% 주거지역에…건강위협

소음은 그 강도가 커질수록 불쾌감이 높아지고, 소음의 고저가 높을수록, 강도나 고저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강한 불쾌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불쾌감은 심리적인 활동과 작업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끄러운 환경속에서는 정신적인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작업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며, 타자수의 타자속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음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음폐효과라고 한다. 당연히 음폐효과도 소음의 강도가 클수록 크다.

도심 심야 주택지의 소음수준은 40dB 정도로 주간에는 40~50dB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야간에 이 정도라면 수면깊이의 저하를 초래하고 보다 늦게 잠들고 보다 일찍 깨게 된다.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는 50~60dB 정도인데, 이 정도의 소음이 지속되면 타액과 위액이 분비되고 위의 운동이 억제되며, 혈압상승, 호흡수의 억제, 근육긴장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사람이 대화하는 음성은 60~70dB 수준인데, 이런 소음이 들릴 때에는 참을만 하지만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말초혈관이 수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번화가의 교통소음은 70~80dB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짜증스러워하며, 혈압상승이나 맥박수의 증가 이외에 청력손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등의 전동차에서 나는 소리는 80~90dB로 생리적으로 소변량이 증가되고, 자동차의 경적음소리는 90~100dB로 이러한 소음속에서는 생리적으로 혈당이 증가하고 성호르몬의 감소가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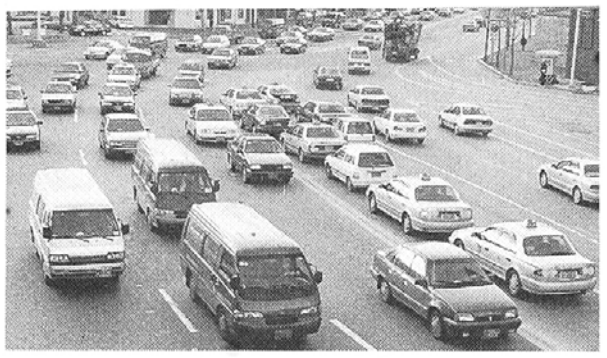
그리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는 100dB 이상으로, 이러한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 청력손실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지만 오랫동안 계속 노출될 경우 영구적인 난청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음공해 수준은 자동차소음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인 소음국가에 속한다. 1985년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소음 65dB 이상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비율이 13%에 육박한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의 7~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서울 도로변 주거지역의 자동차 평균소음은 75dB에 이르며, 이중창으로 소음을 막더라도 실내소음은 55dB 이상이다.

그밖에 소음배출업소로 허가맡은 업소가 1993년말 현재 2만8천3백65개소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100~10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17% 정도가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소음공해로 심각한 것이 항공소음이다. 전국 8개 민간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는 대단하다. 항공기 한 대의 소음은 자동차 10만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소음에 맞먹는다. 정부가 90년 공항주변의 11만여 가구에 대해 피해보상특례법을 마련했다가 폐지한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국불교대 교수〉



◇현대인들은 자동차소음등 하루종일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을 위협당하는 새로운 환경공해 속에 노출돼 있다.

신행수첩

대자유와 보살의 길따라
무량회 원효사상 특강

원효스님은 대해(大海)와 허공(虛空)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자유자재, 무애해질 수 있는 방편으로서 두개의 노(자비행과 지혜)를 힘차게 젓고, 하늘에서는 두개의 날개(止와 觀)를 줄기차게 약동시켜야 한다는 보살의 길을 제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자모임인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다음달 1일(금) 오후 5시30분 올림픽회관 1층 법회장에서 원효스님의 '이익중생의 길'을 조명하는 원효사상 특강을 갖는다.

이번 강좌는 평생을 원효 연구에 몰두해 온 한국불교학계의 태두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02)410-1685, 1163

추위 녹이는 '사랑이 담긴 김장'
길음·삼전·마산중리복지관 후원자 모집

속이 꽉찬 싱싱한 배추에 빠알간 고추양념을 버무리는 주부들의 손끝에서도 성름 다가온 겨울을 느낀다. 그 손끝으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맛을 내는 겨울김장 담그기에 동참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30일까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겨울김장을 준비한다. (02)985-0161~4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도 지역주민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나눔 김치 한포기를 실시한다. 가정에서 담는 김장김치 1~5포기를 결연 후원자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함께 방문하면 된다. (02)421-6077 마산중리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도 제 2회 이웃 김장담궈주기 캠페인을 벌이며 후원자를 모집한다. (0551)31-8017~9

배추 한 포기, 무우 한 다발일지라도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는 충분히 값진 사랑과 후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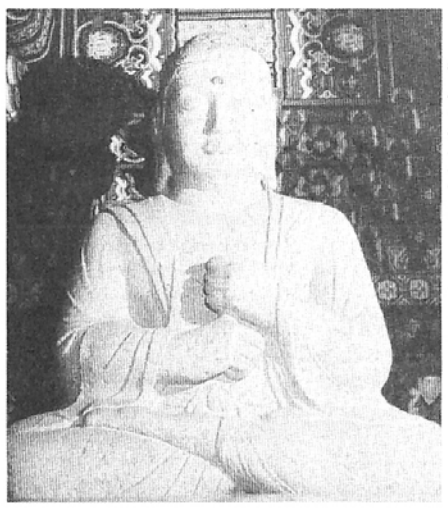
노인치매의 예방과 이해, 중풍의 예방과 치료, 단학수련, 노인건강체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노래자랑도 곁들일 예정이다. (042)633-1141~3

선산 죽장사서 철야정진
진여회, 수도암도 들러

유명고찰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사찰순례를 떠나는 진여회(회장 박진성)는 오는 2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선산 죽장사를 거쳐 직지사 청암사 수도암을 둘러본다.

첫날에는 선산 죽장사에서 철야정진기도를 마치고 계곡의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으로 절경이라고 불리워지는 불영산 청암사를 참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사찰순례의 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암사에서 3㎞ 떨어진 수도암에 닿으면 순례의 길은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입동을 지나 다소 움추리기 쉬운 계절에 한번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찰순례에 동참해 보는 것도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양식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32-0181



◇경북 금릉군 불영산에 위치한 청암사는 석조비로좌나불상과 삼층석탑등 많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96 불교청소년의 해'
포교원, 표어·마크 공모

밝고 맑게 자라나는 청소년 불자들은 우리 불교의 기둥이 될 보배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청소년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할 청소년 단체의 명칭과 청소년의 해 표어 및 심볼 마크를 현상 공모한다.

청소년 단체의 명칭은 청소년들의 특성과 불교적 이미지를 조화시켜 10자 내외로, 표어는 불교사상을 시대속에 구현하려는 청소년의 진취적인 기상을 20자 내외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12월20일까지다. (02)720-7060~4

이와함께 포교원 기획위원회는 오는 12월 9, 10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서 불교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도 가질 계획이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새벽 5시. 서울 창신동 정보리심 보살의 집안에 범종소리가 울린다. 막내 아들 기수(창신국 5년)가 불교방송을 틀어놓았기 때문이다. 도량석 소리와 함께 식구들이 일어나 불단이 차려진 작은 방으로 모인다. 이렇게 정보리심 가족은 매일 아침 라디오방송에 맞추어 아침 예불을 갖는다.

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닌 것이며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예불은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때를 정해 온가족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삼귀의 오분향례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순서로 하면 된다. 발원은 아침에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자비의 하루가 되기를 서원한다. 저녁에는 하루의 업을 참회하며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발원한다.

금주의 주제
가정예불

예불은 꼭 불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조용하고 가장 정결한 곳을 찾아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 된다. 부처님 경구나 불화를 모셔놓고 예불을 모실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불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옛 신라인들은 집안에 불단을 차려놓았고 현재도 동남아 많은 불교국들은 집집마다 불단이 차려있다. 만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소 다니는 사찰을 향해 예불을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발원·자기반조·감사를 생활화
불상·佛字·일원상등 갖추면 더욱 경건

시간이 허락하면 금강경 법성게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정근을 하면 더욱 좋다. 목탁이 없으면 염주를 두손으로 받들어 합장하고 가부좌를 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여야 한다.

불자라면 마땅히 매일 예불을 모셔야 한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조석예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국민학교 교실마다 부처님 말씀을"
월간 '동쪽나라' 전국보급운동에 동참 기대

교계 유일의 어린이 포교지 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에 어른들의 각별한 사랑이 필요하다.

월 6만부 이상씩 발행되는 타종교의 어린이 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걸음마를 계속해 오고 있는 〈동쪽나라〉가 전국 국민학교 학급문고에 꽂혀야 한다는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어릴때 읽은 한 권의 책이 주는 감동은 평생을 두고 지워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동쪽나라〉를 교실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가슴에도 평생 부처님 말씀이 심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월간 〈동쪽나라〉는 전국 어린이들을 만나기에 너무 힘겨웁다. 그간 교계 안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무대에 나가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동쪽나라〉는 불자들의 모교 농어촌 산간벽지의 전국 국민학교 교실마다 〈동쪽나라〉가 꽂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은 불자는 은행지로 3034426번이나 우체국 010231-0028977-12(김형균)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02)263-1387

中央僧伽大學 96學年度 新(編)入生 募集要綱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의 4년제 대학 학력 인정 대학이다.

■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모집정원
불교학과	60명
사회복지학과	60명
계	120명

※제2지망을 할 수 있음.

■ 응시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고교졸업,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타 종단승려도 정원의 5%내 입학할 수 있음.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불교교리고사	면접성적	계
60%	20%	20%	100%
600점	200점	200점	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원서교부기간 : 95. 12. 11(월) 10:00~96. 1. 19(금) 17:00
- 원서접수기간 : 96. 1. 15(월) 10:00~96. 1. 19(금) 17:00
- ※ 토·일요일은 제외
-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함.

■ 입학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내신성적표(입학원서 하단 소정양식에 기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입학원서 뒷면 소정양식에 기록.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다. 석차연명부 사본 1부(이상은 출신고에서 발급)
라. 승적서본(총무원발행)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대학입시용)
바. 보호자추천서 1부 : 타 종단 승려는 소속종단 총무원장의 추천서
사. 호적등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5매
차.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①입학원서대:2,000원(입학요강포함)
②전형료:50,000원

■ 전형일정

- 예 비 소 집 — 장소 : 본교 대강당 — 일시 : 96. 1. 24(수) 09:00(음 12월 5일)
- 불교교리고사 — 장소 : 본교내 고사장 — 일시 : 96. 1. 24(수) 10:00~11:10
- 면 접 고 사 — 장소 : 본교 면접장 — 일시 : 96. 1. 24(수) 13:00~
- 신 체 검 사 — 원서접수시 제출한 건강진단서로 대체함

■ 합격자발표

— 장 소 : 본교 게시판
— 일 시 : 96. 2. 2(금)경 10:00(음 12월 14일)

■ 신입생 장학 및 혜택

- 전체수석 1명 : 1년간 등록금전액+교과서대금 수여
- 전체차석 1명 : 한학기 등록금 전액수여
- 학과수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수업료 전액수여
- 학과차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등록금 반액수여
- ※ 재학중 전교생의 30%정도는 각종 장학혜택을 받는다.

■ 본교 입학생 및 졸업생 특전

1.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이므로, 본교 졸업자는 비구 및 비구니계와 법계 5급(정덕)을 품수 받는다.
2. 본교 졸업후 각 대학원에 진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보건복지부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4. 재학생은 병역연기 혜택을 받으며, 예비군은 본교예비군 소대에 편성, 연중 1일의 기본교육만 받는다.

■편입생 모집요강

(1)모집내용 : 제2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명
제3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약간명
(2)지원자격
제2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승납2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가능)
(전문대는 졸업자, 방통대·산업대(개방대) 1학년이상 수료자)
※단, 전적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제3학년(학사편입) : 대학 4학년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계종의 승납 3년이상 승려
(3)전형방법 : 전적학교성적, 불교교리고사, 면접, 건강진단사정
(4)지원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02)925—5507~9, 926—4377, FAX(02)928—4302



자원봉사 대통령 표창 안청정행 보살

어려운 이들 찾아 늘 '함께'

후원금계좌 30여개 … 사후시신까지 기증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불교도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어요" 오는 12월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안청정행보살(76세)의 소감이다.

35년여 동안 서울구치소, 영등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전국 곳곳의 교정시설을 찾아다니며 재소자들을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타이르고, 마음의 안정을 이끌어온 안보살은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인자한 할머니처럼 오랜세월을 나이도 잊은채 교화를 통한 자원봉사를 해온 것이다.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군불자를 위한 포교까지도 안보살이 평생동안 자원봉사로 해온 일이다.

청정행보살은 지난 21일에는 대전교도소에 관세음 보살 점안식을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달에는 적성의 군부대를 방문해 군불자들에게 맛있는 떡볶이도 만들어 줬다.

청정행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있었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오래전에 한 사형수 아이를 만나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지요. 그 아이가 사형되기 며칠전 '어머니 만나서 불교와 좋은 인연 맺으려고 여기에 제가 왔나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때 울컥 감동이 솟구치기도 했답니다."

안보살은 교도소 방문이외에도 지난 여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실종자 대책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보살은 또 매월 30여 은행계좌로 수십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

지난 10월에는 생명나눔운동본부에 사후시신기증을 신청했다. 자신의 육신까지도 남을 위해 회향하려는 보살의 원력은 거기에 까지 닿아있었다.

"지장보살처럼 세세생생 어려운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뛰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자 원력입니다"

이은자 기자

'평통자문회의서' 기조연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타워호텔 젤코바홉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민족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했다.

해인 동문지 '九光' 출판기념회



보광스님(해인승가대학 동문회장)은 12월 4일 오후6시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 2층 임페리얼 A홀에서 동문지 '九光' 창간 출판기념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진천군 원융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회향법회를 봉행한다.

가사불사 · 고혼천도법회 봉행



지홍스님(설악산 신흥사 주지 사진)은 오는 12월 3일 오전10시 가사불사및 선망부모 유주모주고혼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작법 50호 일응스님등 이수자 스님들이 집전을 맡는다.

'불교인의 자세' 주제 법문

청우스님(등명락가사 주지)은 지난 28일 오후7시 통도사



95 KSW 아 · 태대회 참석



진철스님(통도사 자비원 원장)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95 KSW 아태지역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뉴질랜드 호주등지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견학하고 28일경 귀국할 계획이다.

독일 광법사초청 설법



영담스님(부천석왕사 주지)은 지난 19일 석왕사 독일분원 광법사 초청법회에서 '인생과 불교'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 이날 법회에는 파리 길상사 지묵스님과 조명훈 박사도 동참했다.

화엄경 사경회향법회

석가산스님(원융사 조실)은 96년 1월 16일 오전11시 충북 진천군 원융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불교문화원 창립 2년 좌담회



홍무흠씨(한국불교문화원장)는 오는 28일 문화원 창립 2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단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는다.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는 이호우문학기념회가 제정한 제5회 이호우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5일 오후4시 대구 모산학술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작품은 시조시화집 〈오두막집 行〉.

부산 포교원에서 개최된 부산거사림회 정기법회에 참석 '오늘을 사는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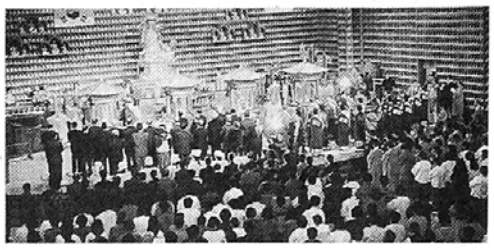
게시판

▲불교전통문화원 강좌신설=불교전통문화원(원장 선혜스님)은 95년 하반기 문화강좌를 신설 12월 1일 개강한다. 신설되는 강좌는 전통다도(강사 선혜스님), 사군자 문인화(강사 이송현)반. (02)732-2068

▲무의탁 노인위안 잔치=맑고향기롭게 살아가기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는 12월 10일 파주 대비양로원에서 무의탁노인 위안잔치를 열친다. 동참금 1만원. (02)741-4696-7

▲원불전 봉안불상 작품공모=동국대(총장 송석구)는 96년 개관예정인 학술문화회관 원불전에 봉안할 불상모형작품을 공모한다. 서류접수마감은 12월 15일까지. (02)260-3791~5

화촉 이승철씨(본사 총무부)는 12월 6일 오전11시 서울 공항터미널 3층 예식부에서 변은숙씨(본사 경리부)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974-2619



삼광사 53불 대탑 진신사리봉안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스님)는 지난 20일 8면9층 53불 대보탑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봉안법회는 1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복장성불봉안식에 이어 2부 대법회가 봉행됐다.

53불대보탑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총7과로써 미얀마에서 4과 인도에서 3과를 모셔왔다.



교각스님 구도소설 '대륙의…' 출판회

중국에서 지장왕보살로 숭앙받는 교각스님의 구도일생을 소설로 엮은 〈대륙의 신라왕자〉출판기념법회가 지난 21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중국구화산방장 인덕스님을 비롯 보광(동국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 세민스님(수안사 주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무구스님(우리출판사 대표)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장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



장상문거사 3주기 추모법회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21일 오후4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장상문거사 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법회에는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총지종 효강통리원장, 장상건 대원정사 이사장및 유가족, 박윤흔 대원회이사장, 진흥원 구본회감사, 대원법회 이상우 회장, 대원불교대학 허성구학장, 불교방송 구영선이사, 불교TV 이태행본부장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출판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 혜담스님)이 창립 5주년을 맞아 펴낸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상 · 하)'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18일 오후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마지막 명호 쓰고나니 감개무량"

만불명호경 사경 100일 임 풍 심 보살



"마지막 부처님명호를 쓰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한참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란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한 것이 흔히 말하는 환희심인가 봅니다."

지난 22일, 서울 구룡사가 만불전 불사를 마치고 1백일간 펼쳐온 '만불명호경 사경 정진법회'를 회향한 임풍심(49.법명 덕명화)보살은 "금생에 또다시 이런 법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감개무량 하다"며 감격 순간을 소개했다.

구룡사 법회는 지난 8월 15일 입제됐다. 임보살은 다섯식구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빠듯한 가운데서도 1백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구룡사 법당에서 사경에 임했다. 1시간 40여분 동안 1백부처님의 명호를 사경하고 108대참회를 세번씩했다.

임보살이 이렇게 사경한 경전은 모두 10권. 임보살은 24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10권의 사경집을 모두 불살랐다.

"본래 무엇을 원하면서 사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자로서 수행으로 했던 것이었기에 시방법계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EIP 캘커타 국립박물관장
비스와스 박사



"부처님의 상(像)은 서기 1세기를 전후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보리수 코끼리 등 여러 심벌로 부처님을 표현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캘커타국립박물관장인 S.S.비스와스박사는 지난 22일 중앙승가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불교미술과 건축문화'란 주제의 특별강연회에서 "부처님상은 4~5세기 굽타왕조때부터 남부유럽의 그레꼬 로만 문화의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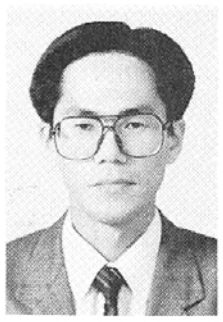
"불상 1세기경 등장"

받아 본격적으로 조성됐다"고 말했다.

용인자연농원에서 열리고 있는 불교방송 주최 세계불교문화전에 전시중인 부처님 사리등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유네스코박물관협회 산하 아시아태평양박물관협회 위원장으로서 한국 박물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내한한 그는 일본의 캄보디아 앙코르 왓트 유적발굴을 소개하면서 한국측과의 활발한 문화 · 학술교류를 희망했다. 〈재〉

"합격은 작은 기쁨 어깨 무거워요"

조계종 1회포교사고시 수석 이 성 형 씨



"최근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불자는 개신교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포교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제1회 포교사고시에서 윤정배씨(부산 동국불교대)와 함께 만점을 받아 최고득점으로 합격한 이성형씨(법명 혜빈, 부산 혜원불교대)는 "합격은 작은기쁨이며 앞으로 포교사로서 짊어져야할 책임감이 무겁다" 고 말했다.

91년 혜원불교대를 수료하고 혜원정사에서 신행활동을 펼쳐온 이씨는 매주 목요일 도반 15명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포교사고시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시험이 쉬웠다고 밝힌 이씨는 '초발심자의 마음으로 정진한다'는 좌우명으로 공부를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중고생 포교를 위해 야학운영 · 학생법회등을 지도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씨는 청소년포교을 위해 거사들을 중심으로 자녀교육모임을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싶다고 향후 바램을 밝혔다. 〈엽〉

"원융결사 347일 만에 세계 최초로 80화엄경 사경이 끝났습니다!!"

※ 이는 석가산 큰스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맹 정진의 크나큰 수행력에 의한 결정체**입니다.

※ 이는 세계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이며 **한민족의 보물이며 한국불교의 대작불사**입니다.

※ 대방광불 화엄경 80권은 **부처님 말씀의 진수이며 대 원융무애의 최고 경전**입니다.

※ 석가산 큰스님께서는 제1차 원융결사를 설정하시고 **장좌불와와 묵언을 하시면서 하루에 18시간을 사경하시고 2시간을 참선, 2시간을 앉아서 주무시는**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행력으로 정진을 하시었습니다.

※ 석가산 스님께서는 **1자 쓰고 1번 절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을 칭념**하시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공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량의 공덕장**입니다.

※ 석가산 큰스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마장 장애를 뛰어 넘고** 크나큰 서원을 성취하시었습니다.

세속 유발 제자 각국 대표

● 중화민국 : 진혜향, 진혜여, 등혜인 ● 싱가폴 : 임준명 ● 미얀마 : 슈완 ● 대한민국 : 김능혜
● 말레이시아 : 마진 ● 태국 : 구네 ● 스리랑카 : 르완랑카 ● 화엄사경회 : 손무량광

한국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현수복지재단, 보리정사, 원융사, 영산불원, 서림선원, 석굴암, 가야정사, 대원사, 극락정사, 정혜사, 지장정사, 불광사, 시흥5동 복지관, 화송 어린이집, 배꽃 어린이집, 강동경찰서 경승회, 꿈나무 어린이집

귀의 삼보하옵고!

일년여 전 불기 2538년 12월 15일 구생종찰 원융사 건립 발원을 위하여 묵언 장좌불와와 대방광불 화엄경 80권을 사경코자 원융결사 용맹정진에 돌입하셨던 태화당 석가산 큰스님께서 화엄경의 대석학으로서 묵언과 장좌불와의 용맹정진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의 80권 사경 회향의 대위업을 한국불교사에 뚜렷이 밝히시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공덕을 널리 회향하고자 큰스님의 허락을 받아 석가산 큰스님 문도회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의 보개회향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의 명단을 등재하여 무량한 공덕장을 성취케 하고 석가산 큰스님께서 사경하신 보현행원품(영인) 1권씩 드려 법 보장으로 소장하여 모든 업장을 소멸케 하고자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화엄경 사경 회향 대법회를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시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회향일시 : 1996년 1월 16일(음력 11월 26일) 오전 11:00시
장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두타산 원융사
연 락 처 : 서울 424-6637~8, 422-7799 / 진천 0434-32-0108
접수마감일 : 1996년 1월 10일
동 참 금 : 3만원
※ 특히 대학 입시생과 영가도 접수하시면 좋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석가산큰스님문도회일동합장



산문밖의 禪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씨

"사막 걷는 수행자처럼 초읽기에도 오직 無心"

"부동심 갖느냐 못갖느냐에 따라 반집차 승부결정"

□ □ □

'이겨야지' 집착 버리고 盤上의 도인돼야 진짜 入神경지

흔히 바둑판은 삶의 축소판(縮小版)이라고들 한다. 반상(盤上)의 승부는 인생의 치열하고도 허망한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승리의 환희심이, 패배의 고통이, 그리고 승패의 덧없음이 한결같은 삶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바둑판 위에서 이기고 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프로 승부사의 세계가 이목을 모으는 것일까.

대중은 환성과 탄식으로 프로기사들을 지켜본다. 승부라는 함정, 착각에 누가 빠지느냐, 실낱같은 줄타기에서 누가 나락(奈落)으로 떨어지느냐를 주시한다.

자기자신과의 싸움

지난 20여년간 한국바둑계를 이끌어온 '세기의 승부사' 조훈현(曺薰鉉·42) 국수(國手). 그는 바둑을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어렵게 정의한다.

"저의 스승인 세고에(瀨越)선생은 멀고 아득하기만 해서 알 수 없다는 뜻으로 '玄遠'이라고 요약하셨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듯 합니다. 불가에서는 그것을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경지를 지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無心)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난 89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잉창치배(應昌期盃)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초대 세계바둑황제에 등극했던 조국수는 잉창치배 결승 4, 5국을 앞둔 무더운 8월, 화선지를 펼쳐놓고 '無心'이란 두 글자를 반복해서 썼다.

"오직 '무심', 고요함만이 상승일로에 있는 중국의 섭위평 9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부는 기술이 아닌 촌각(寸刻)의 흔들림에 있습니다. 누가 최후의 순간에 고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에서만이 걸림없는 수(手)를 둘 수 있고, 끝내는 여의(如意)하게 대국(對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종반 끝내기에서 마지막 1분 초읽기가 매섭게 걸음을 재촉했으나 그는 신기하게도 땡벌의 사막을 걷는 수행자의 심정으로 죽음의 순간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언론들은 이 한판의 승부를 '조훈현의 무심이 섭위평의 의심(疑心)을 이긴 대역전극'이라고 평했다.

조국수는 올해 초 진로배 세계바둑 최강전 일본대표 임해봉 9단과의 결승전때도 '무심'이라고 쓴 부채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었다. 그는 이때도 무심으로 승리해 한국에 3년연속우승의 영예를 안겼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과 같이 싸우되 승패를 뛰어넘는 마음이 무심이다. 하지만 '감정'있는 사람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입신(入神: 9段의 별칭)의 경지에 들어선지 오래인 그도 이 '감정 통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감정절제' 승패좌우

"정상급 기사들의 경우 얼마나 더 마음을 비우는 부동심(不動心)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흔들리면 관세도 흔들리죠. 승패의 집착(執着)을 버릴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나 할까요. 아마추어들도 '꼭 이겨야겠다'고 버르는 판일 수록 대체로 지는 일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같은 '무심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감정 절제'는 대국을 떠난 일상생활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날카로워 보이는 그의 인상과 냉엄한 승부사의 기질이 그를 보다 완벽한 천하제일의 고수(高手)로 보이게끔 하는가 보다.

부인 정미화(39)씨는 조국수에 대해 '낭만가의 소질과 승부사 기질을 모두 지닌 진짜 프로'라고 추켜세운다. 대국장에서는 제갈공명처럼 빈틈없는 그도 집안에서는 완벽한 감정조절로 가족을 그렇게 편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살벌한 프로세계에서 항상 담담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는 마치 세속에 사는 도인(道人) 같다….

바둑의 세계에는 절대강자가 없다. '목숨을 걸고 둔다(조치훈 9단의 말)'는 투혼의 화신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0.01초로 승부를 내는 서부의 총잡이들처럼 승패는 언제나 예측불허다. 그러나 조국수는 기술과 체력 외에도 '무심의 철학'으로 바둑을 둬 왔기에 20년간 정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바둑이 강한 또다른 이유가 있다. 강(剛)과 유(柔)를 겸비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점이다. 그는 공격바둑과 수비(집)바둑의 장점을 절묘하고도 빠른 행마(行馬)바둑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중도(中道)의 바둑'이다. 치우침이 없기에 어떤 유형의 바둑에도 강한 것이다. 그는 '세계최다승' 기록도 갖고 있다. 62년 입단이후 통산전적은 지난 8월24일 현재 1천1백51승 3백59패 9무승부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세계바둑대회(동양증권배·잉창치배·후지쓰배·진로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천하무적의 조국수도 어려워하는 상대가 있다. 바로 그가 키운 '호랑이 새끼' 이창호 7단이다. 대국할 때만 되면 '돌부처'가 되는 내제자(內弟子)와의 '무심' 겨룸은 항상 '반집' 차이의 미세한 승부로 끝난다. 그야말로 사제지간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대화'라고나 할까. 그러나 조국수는 이 바둑황태자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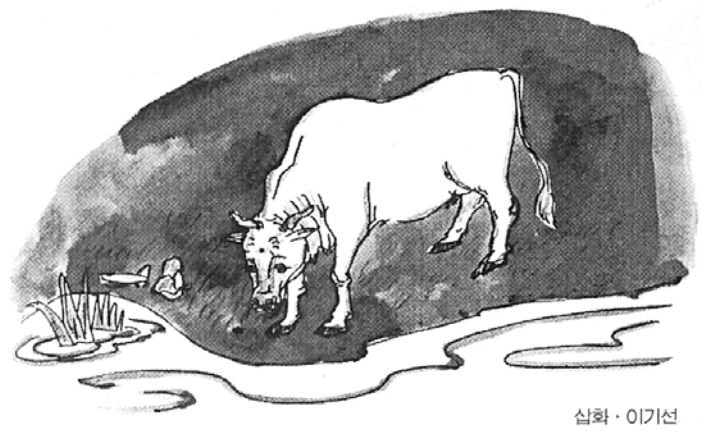
"나도 제자로 있었지만 제자는 능히 스승의 바둑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스승을 능가해야 합니다. 이 7단을 키움으로써 나는 스승들의 은혜를 갚게 됐습니다."

바둑은 그의 삶의 전부이다. 언제나 바둑을 생각하고 연구한다. 새벽일찍 일어나 옛사람들의 기보(棋譜)를 보고 바둑돌을 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바둑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미완(未完)입니다. 바둑의 깊고 오묘한 세계, 언제나 두려움없이 붓을 들어 써본 적이 없는 '玄玄(아득하고 아득한)'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더욱 정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棋道)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바둑사에 오래남을 명국(名局)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의 바둑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깊고 오묘한 세계를 찾아 정진할뿐…"

김재경 기자



삽화 · 이기선

'나와 너' 함께 편안할때 불국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⑫

공생(共生)

8전법·8행법 성취 '바른 닦음'

불교를 믿는 재가불자들은 사찰에 다니면서 자기자신의 수행만 하고, 기도만 하는 개인 신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자신의 청정을 닦아가면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즉 우파사카(재가불자)가 수행상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법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우파사카는 스스로는 계율에 서지만, 남은 바른 계율에 서게 하지 못한다. 스스로는 깨끗한 계율을 가지지만, 남은 바른 계율에 서게 하지 못한다. 스스로는 보시를 행하지만, 보시로써 남을 세우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절에 나아가 여러 사문을 뵈옵지만, 남을 권하여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뵈옵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알뜰히 법을 듣지만 남을 권해 바른 법을 즐겨 듣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법을 들어 가지지만 남은 바른 법을 받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깊은 법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지만, 남을 권하여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마하나마여, 이러한 여덟가지 법만을 성취하면, 이것을 우파사카가 스스로는 편안하게 하나 남은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마하나마는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우파사카로서 몇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파사카로서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한다. 어떤 것이 열여섯인가. 마하나마여, 어떤 우파사카는 바른 믿음을 완전히 갖추어 그것으로써 남도 세운다. 스스로도 깨끗한 계율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남도 세운다. 스스로도 보시를 행하고 남을 가르쳐 보시를 행하게 한다. 스스로도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뵈옵고 남도 시켜 사문을 뵈옵게 한다. 스스로도 알뜰히 법을 듣고 남도 또한 듣게 한다. 스스로도 법을 받아 가지고 남을 시켜 법을 받아 가지게 한다. 스스로를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고, 남에게도 닦아 행하게 한다. 마하나마여, 이런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그것을 우파사카가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마하나마여, 만일 우파사카로서 이런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저 대중들, 즉 바라문 대중, 크샤트리야 대중, 장자 대중, 사문 대중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덕이 환히 빛날 것이다. 마치 태양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파사카로서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이 밝게 빛날 것이다. 마하나마여, 이와 같이 아파사카로서 열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은 얻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석씨 마하나마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나갔다.』

부처님의 교설은 자행(自行)을 가르치고 있다. 남을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만 그 권유에 따라 실천하는 의지가 상대방으로부터 영향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전법되어야 하지만 전법에 대한 행법에 따르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일러준 여덟가지도 이를 강조한 것이다. 사람은 소떼를 몰고 물가로 갈 수 있다. 목마른 소가 직접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된다. 세상에서 억지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중생이 선하게 되는 것도 스스로 발행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끝으로 열여섯가지를 실천하고 궁행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와 네가 함께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자타가 함께 공존하면서 보응되는 교설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 을 해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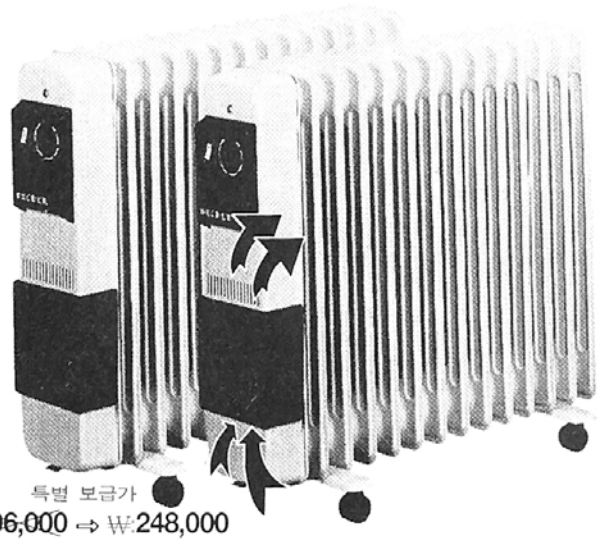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요

BECKER · CALORIC의 장점
-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팬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앙신감각
- 이동이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 요 기 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제 품 사 양

내용 / 품명	BECKER 라디에타
허식승인번호	쏭 7 - 743
전 격 전 압	220V/60Hz
규 격	(W) 82cm × (D) 66cm
방 열 판 수	15개
소 비 전 력	1단 : 1,000W, 2단 : 2,000W, 1단 + 2단 : 3,000W, 2단 + 온풍팬 : 2,800W



특별 보급가 ₩:396,000 ⇨ ₩:248,000

수입원⇨창고⇨소비자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Pierre Cardin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가르뎅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간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판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가 타지 않는다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MAX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식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전국판매망 모집

남미물류(주)
代:02)516-0114
소비자:02) 566-6373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 산: 646-7905~6	인 천: 434-8844	수원: (0331)216-6336	평택, 오산, 안성	성남, 판교		강 릉:	
광 주: 361-1349			(0333)655-0966	일산, 고양:		원 주:	
대 구:			수원: (0331)32-6344	안 양: 43-8949			
대 전: 627-9484				김포, 강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진 주: 43-0880	거제, 충무		천안 · 온양			전 주: 85-5130	
포 항: 47-8794	안 동		(0417)582-4475			이 리	
울 산:	흥성 · 대천 · 예산					군 산: 452-0386	
마 산: 56-7685	(0451)34-0121~2					여 수:	
	서 산: 665-9413						

어 천:
광 양: 762-7944
목 포: 78-6428
순 천

현대의 바람직한 종교인상

봉사하는 성직자

'전환시대…' 세미나서 김종서교수등 제시

전환시대를 맞은 한국의 바람직한 성직자상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지난 18일 불교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성직자와 관련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환시대의 성직자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김종서교수(종교학)는 "현대는 고전적인 지배권위의 시대가 끝나고 실용적 권위가 지배하는 시대"라며 "신자들위에 군립하는 성직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성직자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신대 유성민교수(종교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가 속화함에 따라 성직자가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종교는 성직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영산대 하정남교수는 종교교육기관의 학점 상호인정 제등을 예로 들면서 "종교간의 정보교환이나 교파간의 자료공개 등을 통해 종교간의 갈등을 허물고 다원주의 종교사회에서 건전한 종교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민교수가 제출한 '성직지원자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의 연간 행자교육원 입학자는 4~5백명에 불과하고 전체불교계의 성직지원자는 1~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시대 宗憲

친일주지 반대로 빚 못봐

김광식씨 '1930년대 불교계 동향분석'서 주장


◇김광식씨

일제하의 불교계는 1929년 1월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의 개최를 통해 불교계 일체의 조직과 활동의 근간이 되는 종헌(宗憲)을 완성했다.

당시 불교계의 발전 및 통일운동 등 정신사 측면에서 기념비적 의의를 갖는 종헌의 실행과 관련된 제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불교가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려는 전후사정을 살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25일 중앙승가대학 수행관에서 열린 '종교를 생각하는 모임(간사 김탁)' 주최의 제23차 학술발표회서 '1930년대 불교계의 종헌 실행 문제'란 발표논문을 통해 1930년대 전반기의 종헌실행의 전후 사정 및 그 부진의 문제와 함께 종헌 실행을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대책을 분석했다.

김씨는 "불교계는 승려대회의 산물로 성립한 종헌의 실행을 통해 불교계 내외의 모순과 위해적인 요소를 극복하면서 불교계의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종헌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종헌 실행의 부진은 사찰령으로 대변되는 식민지 현실과 당시 불교계의 자각 부족, 종헌에서 규정한 기관의 조직내용상의 문제 등이었다"면서 "종헌 실행을 저해한 주대상은 사찰령을 토대로 한 본말사 체제하의 관권(官權)에 기생했던 주지들이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들 친일주지들의 비협조의 원인은 △통일기관이 성립되면 본산주지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과 △통일기관에서 인사권을 갖게 되면 친일·관변적인 대상들이 제거된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이후 불교계에서 나온 타개책은 '사법(寺法) 개정운동'과 '종헌 반포기념일' 제정 등이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사법개정운동은 종헌에서 규정한 통일기관의 위상과 그 기관에서 각 사찰을 통제할 권한을 각 사찰의 사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으며, 기념일 반포는 종헌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고 종헌을 절대 지지하자는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결국 당시 불교계는 종헌을 실행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일제 및 그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의 반대와 비협조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한·일교류 문화이해 우선돼야

동국대·대정대·불교대 공동포럼 '문화교류 역사와 전망'

'한일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한 포럼이 동국대와 일본 불교대 대정대 주최로 지난 18일 일본 교토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송석구총장과 일본측 대학의 이사장 학장등 학교관계자와 학자들이 함께한 이날 포럼은 양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키 위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 인정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동국대박물관장 홍윤식교수는 '한·일 문화구조의 상이점 이해와 그 전망'이란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홍교수는 "한국문화가 종합적 총체적 구조를 지니는 반면 일본 문화는 개별적 분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국의 문화적 특성의 융합이 두 나라의 외교와 문화교류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국측에서는 한림대 최영희교수와 단국대 황패강 명예교수가 '한일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 '신화에서의 한일교류에 관한 일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노자의 道 인도 다르마와 유사"

중국 무백혜교수 주장


◇무백혜교수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노자의 도(道)는 산스크리트의 다르마(dharma, 法)와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18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이기영) 초청 학술강연회에서 '인도철학과 불교'를 주제로 강연한 무백혜(巫白慧) 중국사회과학원교수는 "노자의 도가 정신적 초월성의 가장 높은 상태, 모든 사물의 본체라는 의미에서 불교의 진여(眞如) 여래장(如來藏) 보리 열반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인도의 현자들이 '도'라고 하는 자연법(自然法)과 다르마의 법칙 등을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동일한 변증법적 방법을 채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A.D. 200년경 인도의 용수보살은 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베다의 변증법을 계승, 4구(幻)의 변증법이라는 창조적인 형태로 변형시켜 공(空)·가(假)·중(中)의 진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원효관련 논문 12편 수록

'불교연구' 11·12집 합본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은 최근 학술지 〈불교연구〉 제11·12집 합본을 발간했다.

이 논집에는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이기영원장) △문화적·종교적 원형으로서의 원효(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권기종 동국대교수)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정병조) 등 12편의 원효관계 논문이 수록돼 있다. (02)3411-6167~8

법주사

금강문

擁護聖衆滿虛空
(옹호성중만허공)
都在毫光一道中
(도재호광일도중)
信受佛語當擁護
(신수불어당옹호)
奉行經典永流通
(봉행경전영유통)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옹호성중이 온 천지에 가득하시니
모든 길 속에 부처님의 호광이 있도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옹호하고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 충만케하라

불국토 지키는 옹호신장 찬탄

해설 법주사는 조계종 제5교구본사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의 속리산 풍광속에 자리한 이 도량은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에 의신(義信)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고찰들이 그렇듯이 법주사도 절로 드는 길에서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을 지나야 한다. 이 문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얘기했다. 법주사의 금강문에도 금강역사가 모셔져 있다. 때문에 이 주련의 내용도 중생과 가람을 수호하는 옹호신장의 위업을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옹호신장의 위신력만을 추켜세운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중생에게 도움으로 불국토를 지키는 보다 큰 의미의 옹호성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 천지에 가득한 옹호신장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신장의 보살핌이 이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과 그 보살핌을 의심없이 믿는 중생의 세상이 전제될 때 이미 이 세상은 중생의 세계가 아닌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뒷 3행에서 모든 길 속에 부처님의 호광(백호광·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에서 나는 빛, 부처님의 위신력을 상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을 뒤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 귀절은 영산작법 가사의 일부분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남편이 생선을 너무 좋아합니다

문 제 남편은 생선을 워낙 좋아해서 매끼니마다 찾습니다. 어쩌다 생선요리가 빠지면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도 불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른지요.

〈양혜자·경남 김해시 삼방동〉

답 그것 또한 살생이다 싶어 꺼리시는 모양이군요. 언젠가 본란을 통해서 육식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도 공기중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야채로 상을 차린들 그것은 살생이 아닌가요. 모든 생명체들의 살아가는 이치가 그러하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나 한 몸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그 생명체들도 기꺼이 응해줄 것입니다.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천도가 되니 말입니다.

남편이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즐겨서 걱정이라면 억지로 못먹게 하려들지 말고 그대로 응해주면서 마음으로 가만히 한생각 내어보세요. '당신 몸이 건강하려면 균형있는 식사를 해야할 터이니 채소를 마다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3 아들이 놀러만 다녀 속상해요

문 고3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다는데 제 아이는 도무지 열심히 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엉뚱한데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여간 속이 상하는게 아닙니다. 제 자신도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아서 자주 야단을 친곤 합니다만 마이동풍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효경·대전 동구 용운동〉

답 야단을 쳐가며 육신을 다잡으려 해서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겠지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좋아다니며 왜 공부는 안하고 TV만 보느냐,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남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며 잔소리를 해대지만 그렇게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얘길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놀음인데 말로 잡고 몸으로 잡으려 해서야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어머니의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든, 공부를 안하고 보는 앞에서 놀기만하든 그 모양새에 이끌려서 짜증부터 내질말고 마음과 마음이면 다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 우리가 흔히 원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 몸으로 다그치면 하는 척이야 하겠지요. 그러나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하게 할려면 마음이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끊고 간데 없이 통하니까 걱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태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돌려 놓도록 해보세요.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하겠지만 말로 몸으로 해서 안되는 일인줄 익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으니까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보세요.

부모 자식 사이처럼 잘 통하는 경우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벨이 울리면 조만간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유인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문 부처님한테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 열반에 빠진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철대오를 바라게 되는데 이게 다 언어놀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인의 경계는 어떤 것인지요.

〈정한성·서울 성북구 삼선동〉

답 스스로 실천해 보아야 알고 맛을 보아야 알듯이 댁에서 겪어 보아야 압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애를 낳기는 했는데 제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거둬주고 해야하는데 그렇듯이 성품을 볼 때까지 수행을 해야합니다. 정신이 어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견성했다 해서 다는 아닙니다. 또다시 얼마를 수행해야 할지 모르지요. 일체를 놓고 들어가 견성했듯이 또 계속 놓고가야 합니다.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 비로소 성인(成人)이 되는데 둘아닌 도리를 확연히 꿰뚫었을 때 나툼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돼지가 원하면 돼지가 되어주고 뱀이 원하면 뱀이 되어주고, 그래야만 보살로서 걸림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쯤은 되어야 광대무변한 법을 가로 세로로 꿴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자재가 아닌 까닭이지요.

하지만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겠다느니 보았느니 듣겠다느니 듣느니 해서는 안됩니다. 책을 보고 통했다해도 물컵 속의 물 한 방울도 스스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도 필요없고 이론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어른이 되어야 하고 생사조차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생사가 끄덜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사조차 없다는 경지가 되어야지요.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님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바로 부처님법의 공부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새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에의 길
1 모든 중생을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 앙굴리말라
2) 용녀의 성불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그리고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징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1권당 1,000원
■ 크기/신국판(152㎜×223㎜)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법보시가격/4,000원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62

"현장경험 살려 신행혁신 앞장"

조계종 새 포교원장 성타스님

지난 17일 조계종 제119회 정기종회에서 6대 포교원장으로 성타스님(불국사 부주지)이 선출됐다.

스님은 불국사에서 출가한 이후 줄곧 경주지역에서 수행하면서 강사로서 후학 배출과 포교를 병행해 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교가 담당해야할 역할 모색을 위해 지역에서 경실련등 대사회운동단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스님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랜 포교일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단없는 신행혁신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포교청사진' 수립, '통일법요집' 추진, 〈법회와 설법〉 발행, '96년 불교청소년의 해' 전개 등 커다란 짐을 싣고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임 원장 성타스님의 포부를 들어본다.

약력

- 52년 불국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수지
- 70년 법주사 강사
- 80년 6대 이후 7, 8, 10, 11대 중앙종회의원
- 91년 불국사 부주지
- 현재 (사)대자연환경보존회 이사장, 원효학연구원 이사장

비구니스님 활동역량 기대

—먼저 축하합니다. 소감은.

▲지난 1년동안 포교원은 어느때 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포교청사진을 수립하고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한 것은 1천6백년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임 정락스님의 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스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자기 제가 후임을 맡게되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봉사이기에 성심껏 주어진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미래 한국불교의 성패는 포교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교현장에서 보신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경주에 오래 있다보니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불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일본과 한국은 종파불교로 비슷하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기때문입니다. 일본의 종파는 수백년을 이어온 것으로 가풍, 전통, 특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종파역사는 불과 50여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내용면에서 서로 비슷하고 전체불교의 80%를 조계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나라 불자들이 오해할만 하지요. 각 종파별로 색깔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학자들은 일본의 불교는 학문적으로 발전했으나 오랜타성에 젖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흥종교가 성행하고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불교는 오랜역사와 함께 수많은 자기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시대에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불교는 근세들어 두번의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해방후 비구대처의 갈등이고 또하나는 지난해에 있었던 불교개혁입니다. 모두가 불교정화와 스스로의 자정으로 이겨냈습니다.

한국불교가 세계에 내놓을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가운데 비구니스님의 역할은 매우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비구니스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포교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발휘할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불교에 있어 전통신앙을 주관하는 무속인들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타종교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무속인을 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불교계도 무속인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무속인들을 최대한 포용하여 올바른 신행의 길로 이끄는 포교를 위해 포교원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포교원은 출범이후 많은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어 개혁종단의 선봉장이라는 평을 받고있습니다. 신임 원장스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포교의 목표가 있다면.

▲10년전 스리랑카를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사찰이 있고 항상 개방되어 계층별로 신행활동을 펼치고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리랑카 불교가 성행할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계층별로 전문화된 포교가 펼쳐져야 합니다. 최근들어 도심속에도 포교당이 늘고 일요법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위해 집중적으로 힘을 모을것입니다.청소년을 외면하고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도심포교당 일요법회 활성

—스님은 포교원장에 이어 최근 경주경실련 공동대표로 추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불교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속철 경주통과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적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입니다.

경주 경실련은 경주를 우회하는 제3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안은 경주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고 있어 정부관계자들의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맡고계셔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포교원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계층별 직능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따라야 합니다. 현재도 포교원의 공간과 인력이 절대부족해 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앞으로 포교원은 신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서비스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교를 하는 사람이나 불교귀의를 원하는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 맞아 미래불심 심기 주력

계층·직능별 포교전문화 추진…인력확보에 최선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조철규 〈굽나무문화재단 대표〉



"선택받은 자기 삶 사랑이 수행"

산사생활은 생각의 너비·깊이 더해준 밑거름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든 수행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삶의 의미를 느낄 무렵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랑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어려운 일로 여겼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힘써 닦아 쌓아간다는 의미의 수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엉뚱한 구석이 있었던 나는 힘든 사랑보다는 혼자하는 수행이 쉬울 것 같아 일의 선후를 정하여 수행부터 시작한 셈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도 '사랑'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빌미로 삼아 일찍 사랑을 포기한 도피였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내 주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훌쩍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되었고, 이때가 1학년 고등학생이었다.

이 발상 자체도 고작해야 동서남북으로 뚫린 성문으로 나아가 누구든 태어나면 병들어 늙고 죽는 것과 수행하는 성자의 거룩한 모습을 만나게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문유관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나 접한 지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태자의 신분으로 이미 한나라의 왕에 오를 수 있는 지위도, 아름다운 여인 마야부인도 뒤로 하고 궁성을 넘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혹독한 고행의 길을 택하여 설산으로 향하지 않았던가….



그에 비하면 난 도대체 무엇인가? 더이상 무엇에 주저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집을 떠나기로 하였고, 사실 나를 에워 싼 주변이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게끔 상황이 전개되어 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처음 수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짜릿한 쾌감 뒤에 오는 불쾌감은 죄의식으로 남아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며 고민하게 했다. 시집온 이웃집 새댁을 흥미있게 지켜 보았고 남산만한 배가 불러 뒤뚱이는 오리걸음 뒤에는 어느날 금줄이 걸리고 아기울음이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앙증맞게 들려왔다. 무척이나 따랐던 형이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말려 지게짐이 된채 대문을 나서고부터 더욱 우울해 졌다.

여기에다 이웃집 동급생 여학생이 오빠가 있다는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해 갔고 방학이 되면 내려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시골구석 학교에 다닌다는게 창피했고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리저리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으로 오는 방황은 친구와 어울리지 못했고 집이나 학교가 도무지 싫어졌다.

자연히 조용한 산을 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명당자리만 골라앉은 절간이 바다속의 섬처럼 떠올라 보였다. 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두렵게만 느껴지던 스님한테 용기를 내어 말을 붙여 보았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이 섬에 닻을 내림으로 이런 어려움을 뭍으로부터 청산해보고 싶은 탈출에 부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괴로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만 누릴 수 있다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실천하기로 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부지런히 짓고 빨고 쓸고 닦았다. 이 행자생활을 나를 털어내고 비울 수 있는 잣대로 삼아 수행했다.

이후 득도하여 승려의 본분에서도 그림자처럼 떨어질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은 나를 무던히도 곤혹케 했으나 그것들은 오히려 나의 생각을 넓혀주었고 깊이를 더해준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수행이란 선택받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일이며 사랑하는 삶이란 수행과 함께 이루어져 공유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삶이란 참으로 존재해 볼만한 가치있는 것임을 알았고 이런 길을 선택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수 있었다.

새롭게 인식된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불법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가피였다. 산을 내려온 지금도 나는 일주일에 한번은 꼭 부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 108참회를 거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자리에 들기전 짧은 시간이나마 참선을 생활처럼 여겨 팽팽히 당겨진 수행의 끈을 생명줄처럼 놓지 않고있다.

수행은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율해 보면 참으로 값진 삶의 기묘한 리듬을 두들겨 낼 수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로움처럼 맑으면 맑은 날로 햇살을 부어주고 궂으면 궂은 날로 비를 내리듯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유통업자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원한 내것이란… 윤청광 지음



불교를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는 한자경전을 우리글로 옮겨 중생속에 가깝게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이생에 마치지 못한 역경사업을 내생에는 반드시 마치고 싶구나."

한국불교의 중흥이 한글대장경 편찬에 있다고 확신하여 동국역경원을 설립, 불교

'역경 한평생' 운허스님 삶 소설화

경전을 우리글로 펴내는 역경사업에 몰두한 운허스님이 남긴 유언이다.

〈영원한 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네〉는 우리나라 불교에 한글시대를 연 운허스님의 삶을 소설형식으로 재구성, 다시 이땅에 오셨다는 스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에 가담. 일본경찰에 쫓겨 봉일사에 머물다 경송스님을 은사로 출가. 광동중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역경원을 설립, 한글대장경 편찬에 심혈을 쏟은 운허스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언어문화사, 6천원〉

화제의 책

길 그리고 길 도법 지음



불교수행자에게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갖고 다가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뇌는 수행의 지난 합만큼이나 큰 무게를 지닌다. 경전의 바다를 헤엄치고 용맹정진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길 그리고 길〉은 한 수행자가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이름을 빌려 불교교단과 학국사회문제에 대해

교단·사회에 던지는 수행자의 고뇌

갖는 문제의식과 고뇌의 편린이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 삶의 원초적인 허무와 고통으로부터의 절박함, 그 절박함에서 발견한 삶의 길을 펼쳐보이고 있다.

'선재동자의 발심' '영원한 선지식 보현보살' 등 50개 이야기로 구성.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과 균형잡힌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 정진해온 저자의 오래 묵은 목소리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선재동자의 발심' '영원

〈선우도량,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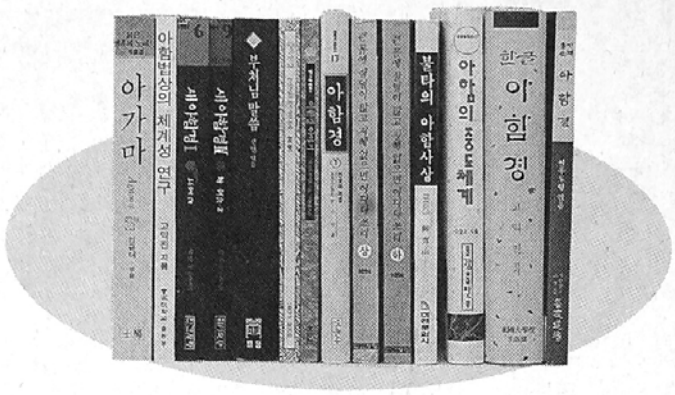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도가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계했겠나	서 암	둥 지
2	기도	일 타	효 림
3	소설 등신불 1, 2	석 용 산	문학수첩
4	윤회의 법칙	김 성 규	큰 산
5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6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7	선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시공사
8	영원한 내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네	윤 청 광	언어문화사
9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김형우 외	사찰문화연구원
10	가려뽑은 아함경	교육위원회	선우도량

구입문의:(02)737-0695

'부처님 육성' 아함경 읽기 붐

연기·자비·깨달음·보살정신등 대승사상 근본 2480經

한글 대장경·간추린 번역본·해설서·논저등 20여종



◇아함경은 이설의 대립이나 대·소승의 구별이 없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다.

소승경전 또는 근기낮은 중생들에게 설해진 경전이라는 그릇된 편향을 넘어서서 아함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왜 아함경인가. 한국불교학에 아함경연구를 개척한 고 김동화박사는 〈아함법상의 체계성연구〉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불교의 근본사상과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아함이 아니고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아함에서는 불교흥기 당시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사상이 불교에 도전해오고 그런 도전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인생의 의의인가를 밝히고 계신다."

아함경은 어느 특정한 경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석가입멸 후 1년 이내에 결집된 부처님 교설의 집성을 총칭한다. 따라서 '아함부'라는 명칭이 더 적당하다. 한역대장경 안에는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 등 네가지(한역4아함)에 2천4백80경이 들어 있다. 팔리경전은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 등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좁더 부처님 원음에 가까운 것은 잡아함경과 상응부경전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에 가깝고 사상적인 변화도 거의 없으며, 이설의 대립이나 대·소승의 구별도 보이지 않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다.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사상, 근본정신인 자비, 근본주의인 깨달음(覺) 그리고 대승의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사상 등이 총체적으로 설해져 있다.

아함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 경전에 관한 책도 아함경 전편을 우리글로 옮긴 동국역경원판 〈한글대장경〉(1~10책)과 〈새 아함경〉(전10권, 이연숙 옮김, 인간사랑)을 비롯 20여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아함법상의 체계성연구〉(동국대출판부)는 아함경에 설해진 십이처설(十二處說) 오온설(五蘊說)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 등 불교의 기본교리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아함의 중도체계〉(이중표, 불광)에서는 '아함의 사상은 중도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교의 실천적·사상적 중도행을 밝히고, 불교가 현대철학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능동적인 사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이와는 달리 아함경을 텍스트로 삼아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재구성한 책으로는 〈가려뽑은 아함경〉(선우도량 교육위원회) 〈부처님 말씀〉(성열 편, 현암사) 〈불타의 아함사상〉(보산 편, 미래문화사) 〈큰몸에 살덩이많고 지혜없으면 어디다 쓰리〉(이연숙 편, 인간사랑) 〈아함경 이야기〉(이원섭 옮김, 현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분번역해 펴낸 것으로는 〈아함경〉(돈연 옮김, 민족사) 〈잡아함경〉(돈연 편저, 해인사출판부) 〈한글 아함경〉(고익진 편역, 동국대출판부) 등이 있다.

그러나 아함경의 중요성에만 매달려 '아함경만이 모든 것'이라는 식의 교조화도 바른 견해는 아니다.

법성스님은 이와 관련 세가지 유의점을 제시한다. △교조화되면 자칫 불교철학의 속류화와 연기론의 단순소박화에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으며 △종파불교가 확립한 전통과 사상의 축적물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를 푸는 실천적 관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성운 기자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학술출판 진흥기금' 설치등 보완책 절실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후 50년까지 소급보호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저작권법이 지난 17일 개정됨에 따라 불서 출판계도 새로운 출판환경에 직면했다.

출판계는 87년 이후 출간된 책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금세기에 나온 거의 모든 외국인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출판시장이 협소한 불서학술출판사들은 저작권료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저작권대책위원회(위원장 윤청광)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치명적인 문화공동현상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해 학술출판진흥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출판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로나온 책……

▲부모은중경(정의행 옮김)=헤아릴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설한 불교의 효경인 부모은중경을 '돈황본'을 텍스트로 삼아 우리글로 옮겼다.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에 실린 김홍도의 판화와 부모은난보경 우란분경도 함께 실었다. 〈이바지, 3천원〉

▲금강경이야기·하(법륜 지음)=금강경 32분 가운데 17~32분까지의 경전설법을 묶었다. '진정한 보살이 되는 길' '금강경의 멋진 신세계' 등 6장으로 구성, '나'를 버리는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이끈다. 〈정토, 6천2백원〉

▲선으로의 초대(스즈키 순류 지음)=덧없는 인생속에서 어떻게 영구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일본 조동종 스즈키선사의 답변. 저자는 일체의 존재들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속에 있는 불성을 보라고 강조한다. 최세만 옮김〈시공사, 5천원〉

▲그 마음을 비쳐라(김재웅 지음)=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인 저자가 '닦는 마음 밝은 마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 이어 세번째 펴내는 수행지침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용화, 7천5백원〉

▲지장왕보살 김교각(한상린 외 그림)=중국 구화산을 지장도량으로 일군 교각스님의 구도일대기를 담은 화보집. 탄생으로부터 입멸후 지장보살로서의 현시과정을 102장의 그림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출판사, 5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오 진 모
〈강원개발연구원장〉

우리 삶의 규명은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규명하기 어려운 명제이다. 이러한 규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도 의문이기도 하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삶의 고통을 해결하여야 하며 행복의 문을 열어야 하는 과제와 일생동안 함께 하여야 한다.

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고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중생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 역시 부처임을 일러 주셨다. 우리가 부처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내재된 부처 아님을 씻어내야 하고 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참선으로 향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어야 한다.

한때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만암 큰스님은 어느 설법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문을 하시고는, "어부가 낚시대를 드리우고 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자애스러

일체를 놓아버린 '행복' 가르쳐

명상·깨달음 문답식으로 서술

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그 순간, 장사꾼이 노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자세, 구걸하는 거지가 깡통을 들고 남의 문전에 서서 주인이 가져다 주는 동냥을 기다리는 순간 등, 이 모든 것이 선 아님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에 의심을 품은 젊은 수좌가 "이것 저것이 다 선이면 농부가 밭가는 것도 선일테고, 학생이 책가방 메고 학교가는 것도 선일테고 무엇 하나 선 아님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 만암스님께서 "허, 그게 선인줄 모르니까 탈이다"라고 하셨다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수행하는 이라면 누구나 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연 선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도 젊은 수좌처럼 만암 스님의 법문에 의심을 품은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의 '다이센 데시마루' 선사가 지은 〈지금이 자리에서의 깨달음〉(도서출판 장승)이라는 책을 대하고 보니 화두를 대한 듯 나의 관심이 불같이 일어남을 느꼈다. 내용을 살펴보니 좌선수행과 깨달음을 위주로 불교의 핵심을 짚어가는 사항들이 매우 논리적이었고, 막혔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로 종교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일깨워줌으로써 종교의 편견과 집착을 놓게했다. 또 선은 명상이며 명상은 곧 종교의 내용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는 선은 순수 본질로의 회복과 우주질서와의 조화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로 깨달음의 요체는 일체를 벗어버린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사는 이를 아주 쉬운 문답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와도 비교함으로써 폭넓은 이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현재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의의 것은 일체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일대의 변혁적인 삶을 깨우쳐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얻어진 작은 깨달음이 성숙되어 참되고 위없는 깨달음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도 잊지말아야 할 영원한 삶의 귀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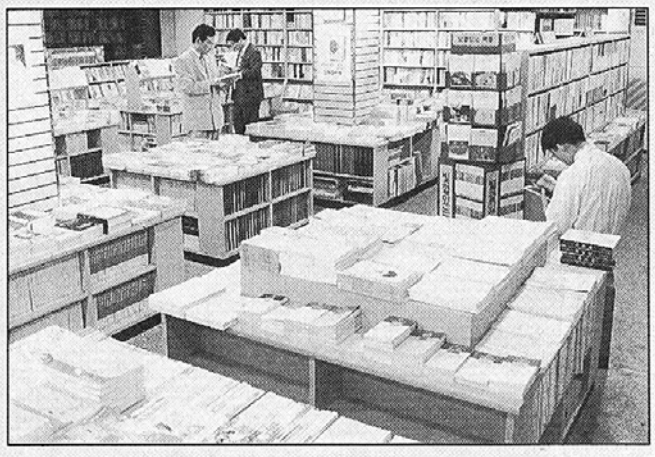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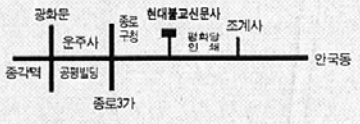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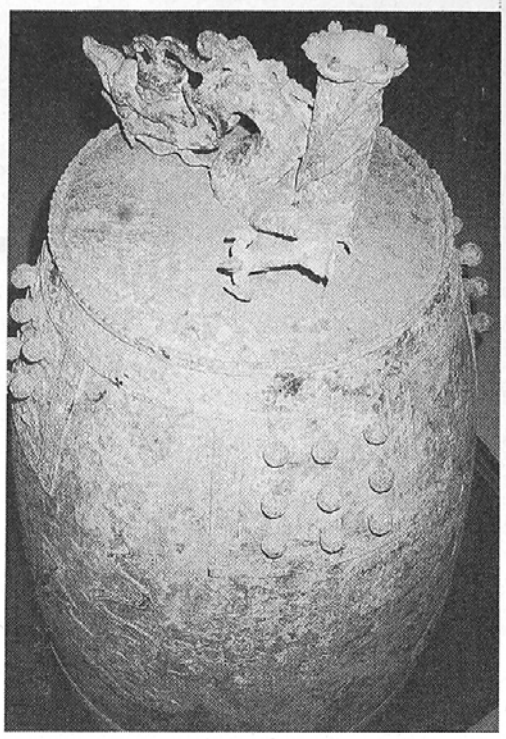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국보급 고려동종 포항 吾魚池서 발견

제작연도 명문·비천상등 선명…"내소사 종보다 섬세"

◇지난 16일 포항 오어지에서 발견된 고려 고종3년 제작 청동범종. 비천상등 문양이 섬세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해 국보급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려 고종3년에 제작된 국보급 청동범종이 지난 1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오어사앞 오어지(吾魚池)에서 발견됐다.

이 청동범종은 영일농지개량조합이 오어지 준설작업을 하던중 지난 16일 오후 포크레인 기사에 의해 발견 포항시에 신고됐다. 발견된 종은 높이 92㎝ 직경 60㎝ 둘레 180㎝ 두께 5.5㎝ 규모. 종 아래부분에 고려 고종3년인 정우4년(1216년)이라는 제작연대와 제작자·제작배경을 알려주는 30여 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음도 확인됐다.

내소사 고려범종(보물 제238호)과 유사한 형태인 이 범종은 음관과 용이 상부에 조각돼 있고 몸통에는 비천상이 양각돼 있으며 '옴마니반메훔'이란 글씨도 양편에 양각돼 있다.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이 그대로 보존된 이 종이 오어지에서 발견된 것은 임란 등의 난세에 도난·훼손을 피하기 위해 물에 묻어두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황수영박사(전 동국대총장·문화재전문위원)는 이 종을 보고 "내소사 종보다 훨씬 섬세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국보급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려대의 종이 발견된 오어지에는 다른 중요 문화재도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시, 오어사측은 오어지에 대한 대규모 발굴작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 한 관계자는 "매설문화재이므로 경상북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문화재계의 한 직원은 "현재 오어지 준설공사는 중지된 상태이지만 추가 발굴계획은 예산이 없는 등 여건상 손 못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어지의 추가발굴은 이번에 발굴된 범종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후 진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포항=이윤호 기자

불심시심 〈38〉

비로봉에 올라

秋風健脚上毘盧 (추풍건각상비로) 건강한 다리 가을바람에 비로봉 오르니
雲外靑山手可摸 (운외청산수가모) 구름밖의 푸른 산 손으로 잡을만하다
逸興發時天共遠 (일흥발시천공원) 멋있는 흥취 일때는 하늘도 함께 멀더니
此身遊處月同孤 (차신유처월동고) 이몸 노니는 곳에 달과함께 외롭다
日斜萬壑猶明滅 (일사만학유명멸) 햇살빗긴 온갖 골짜기 명암이 엇갈리고
嵐尘千峯遞有無 (람소원봉체유무) 아지랑이며 씻기는 봉우리는 유무로 교체된다
下視八荒如蟻蛭 (하시팔황여의질) 내려다뵈는 천하 개미집 같으니
不堪回首洛陽都 (불감회수락양도) 머리돌려 장안의 도성 보기가 난감하구나

이 시도 기암대사의 시이다. 지난회에 이어 금강산의 비로봉을 읊은 시를 하나 더 소개해 보았다. 지난번 금강산의 시가 금강산 전체를 상하의 공간에 두고 읊은 것이라면, 이 시는 거기에서 가장 높다는 비로봉의 정상에서 굽어보는 절경이다. 계절도 가을의 단풍철이라 사실과 어울릴까 하여 소개해 본다.

가을 바람의 선선함에 길을 나서는 건장한 발걸음이다. 금강산에서도 제일 높은 비로봉에 올랐다. 산은 구름을 뚫고 솟아 올랐다. 금방이라도 잡힐 듯이 가까워진 하늘이다.

산에 오르느라고 생각할 때의 그 멋진 흥취는 하늘 닿을 듯한 유원함이었다. 하늘이 멀어 멀다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흥취가 더 유원했었다. 그래서 오른 비로봉의 정상이다. 그러나 이 몸이 오른 이 곳은 달과 함께 외롭다. 달은 지상에서보다 분명히 가까워졌지만 가까워진만큼 달은 더 외로워 보인다. 더 하늘 멀리 외로이 떠 있기 때문이다. 정상에 오른다나 또한 정상이라는 그 극한점은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더해 준다.

굽어보는 하계. 온갖 골짜기에 비치는 햇살의 비침 가리움에서 명암이 서로 대조되는 일만 골짜기의 만학이다. 이러한 명암이 바로 하계로 상징되는 인간세상의 인정물태일 수도 있다. 아지랑이는 수시로 피어오르다 사라진다. 이 기멸하는 아지랑이 속에 있다 없어졌다 하는 온갖 봉우리이다. 이 있고 없음의 교차, 또는 밝고 어둠의 대칭적 계곡이 인간세태요, 미혹과 깨우침의 승속적 거리일 수도 있다. 사물을 이렇듯 대칭으로 보는 선사의 표현은 그 깨우침의 정도를 작의적으로 제시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시선을 종합할 때 아무리 넓다 하는 천하도 개미집의 한 줌 흙일 것이니 하나의 도성의 시끄러움이 가소로울 수 밖에 없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14세기 元代의 달마도·작가미상.

원광대 최순택교수 '달마도의 세계' 펴내

달마도 모든 것 '한눈에'

당·송대 작품등 고본 85점 수록

달마도의 매력은 경전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오(自悟)를 자극하고 환기시키는 수행법으로 벽관(壁觀)을 가르친 그의 이미지가 그림 가득 들어찬데 있다.

달마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책이 나왔다. 원광대 최순택교수가 최근 펴낸 〈달마도의 세계〉(학문사)가 그것.

최교수는 동양의 미술사를 연구하며 선화와 달마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선화연구〉를 펴낸 최교수가 다시 달마도만을 내용으로 묶은 〈달마도의 세계〉는 85장의 달마도와 '달마도의 역사적 전개' '달마도의 내용과 형식'이란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판은 일본 가마꾸라시대(14세기) 때의 「노엽달마도」(작자미상), 명대의 정운붕이 그린 「달마조감도」(1574년), 남송대의 「홍의 달마도」(1271년경·작자미상) 원대(14세기)의 「노엽달마도」(작자미상)등 고본들이 실려있다. 또 근현대 선승들의 작품과 1430년에 일본승려 슈케이(集堅)가 제작한 달마사의 존상도도 소개되고 있다.

최교수는 달마도를 크게 다섯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달마노엽도해도(達磨蘆葉渡海圖)'는 인도승 달마가 중국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달마 벽관도(壁觀圖)'는 달마의 9년에 이르는 면벽수행을 그린 것. '혜가단비도(慧可斷臂圖)'는 2조 혜가가 달마 앞에서 팔뚝을 잘라 보이는 유명한 내용이다. '반신의 달마상'은 달마의 눈과 얼굴이 부각된 상반신도이며 '척리달마도(隻履達磨圖)'는 지팡이에 신한짝을 매달고 떠나는 달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달마도는 돈오견성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최교수는 "때문에 채색화 보다는 수묵화 양식이 선호됐으며 붓의 놀림도 발묵법(潑墨法)과 감필법(減筆法)을 발전시켰다"고 적고 있다.

〈달마도의 세계〉는 내년초에 일본과 독일에서도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임연태 기자

화엄사 각황전등 209점 복원

전남도, 2천년까지

전남도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7백14억3천1백만원을 들여 보림사 삼층석탑 석등(국보 44)·화엄사 각황전(국보 67)·송광사 하사당(보물 263) 등 2백9점의 문화재를 복원·보수하는 '문화재 보존 중기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 13일 도에 따르면 9월 22일~10월15일까지 7백16점의 각종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61점과 도지정문화재 1백48점의 보수·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2000년까지 문화재 보존 중기계획을 수립, 1차 연도인 내년에 모두 1백4억2천5백만원을 들여 천연기념물 239호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림에 대한 외과수술등 93건의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한국민속무용 공연

하와이 불은사, 내달 2일

하와이 불은사(주지 자은)와 한인회(회장 강동석)는 하와이 이민 92주년과 조국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민속무용단 공연을 다음달 2일 오후3시와 7시 마미야극장에서 갖는다.

한국민속무용단(단장 조흥동)과 자은스님이 무대를 꾸미는 이번 공연에서는 살풀이, 태평무, 부채춤, 승무, 한량무등 전통춤사위와 '한국의 인상' '밤의 소리' '내마음의 흐름' 등 창작무용이 선보인다.



◇자은스님

자동차전시장서 보는 만다라

석도열스님 작품전

자동차라는 메카니즘이 불교 그림과 만났다.

만다라를 주제로 한 유화작품 25점이 자동차 전시장에 걸려 매장의 갤러리화를 이룬 곳은 대우자동차 종로지점(732-5391)이다. 안국동 네거리 육교옆의 이 자동차 매장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석도열스님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이미 일본등지에서 이같은 이벤트가 자주 등장했으나 서울에선 보기드문 행사다. 이 행사는 대우그룹이 기업의 문화운동 참여 일환으로 각 지점에 문화행사를 권유한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석도열스님은 이번 전시 주제를 「우주를 향한 희열, 만다라전」으로 정하고 신작을 중심으로 내놓았다.

밀교강의등 신설

진흥원 불교문화센터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제 13기 불교문화센터 강좌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2주간 개설된다.

33개 과목 46개 강좌가 개설돼며 밀교사상강의(종석스님) 유식30송 강의(혜거스님) 대승불교강좌(최봉수) 문화재교실(윤열수)등 4과목이 신설됐다. (02)703-0108

불음합창단 창단 10년 기념무대

내달 15일 세종소강당…수화찬불가등 공연

불음합창단(단장·김동현)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무대를 꾸민다.

85년 9명의 주부불자로 시작돼 현재 4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 합창단의 기념무대는 다음달 15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막을 연다.

1부에서는 이영화씨의 지휘와 라수향·이희숙씨의 반주로 작고한 불교음악인의 노래를 모아 부른다. 김용호씨의 '나의 연꽃' 서창업씨의 '연꽃피는 날' 한상림씨 작가 '꽃공양' 이길상씨의 '나무석가모니불' 등의 공연에 이어 서창업씨의 시 '보리수 그늘에서'도 낭송된다. 2부에서는 정부기 김동환 변규백씨 등의 찬불가와 중창, 수화노래 등이 무대를 꾸민다. 10주년 기념의 하일라이트인 3부에서는 단원들의 사위, 아들등 가족이 함께 나와 '하염없이 아낌없이'등을 부른다.

지난 10여년간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 음성공양을 펴온 불음합창단은 이날 공연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의 지원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경봉스님의 유묵 '청정'.

근현대 고승 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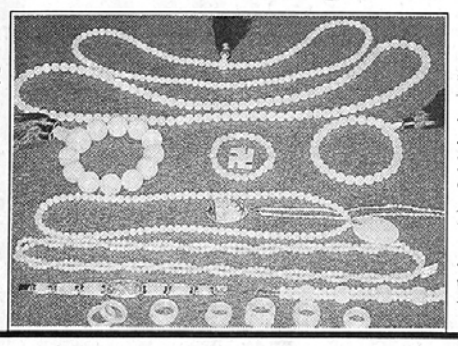
청주BBS 기금마련

불교청주방송국 개국을 위한 원로스님 및 중진작가 초대전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조계사내 불교회관(총무원 건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미 입적한 근현대의 고승 청담 경봉 탄허 무불스님의 유묵을 볼 수 있다.

또 석주 혜각 월산 원담스님 등 방장·조실스님들의 필치와 남석 김충현 현중하등 재가 원로 서예가들의 묵향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병풍 산수화 등이 다양하게 내걸린다.

속리산 법주사(주지 월성)가 주최하는 이 전시의 수익금은 불교청주방송 개국에 전액 쓰여진다. 전시는 내년 2월에 청주에서도 열린다.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 신장질환자 92%,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린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옥목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옷받치 84%, 옷목 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시 유통회사 책임 - 2년 지루터 감금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강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열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7〉

怡山然禪師 發願文 (이산연선사 발원문) ①

歸命十方調御師 演揚淸淨微妙法
귀명시방조어사 연양청정미묘법
三乘四果解脫僧 願賜慈悲哀攝受
삼승사과해탈승 원사자비애섭수
但某甲 自違眞性 枉入迷流
단모갑 자위진성 왕입미류
隨生死而飄沈 逐色聲而貪染
수생사이표침 축색성이탐염
十纏十使 積成有漏之因
십전십사 적성유루지인
六根六塵 妄作無邊之罪
육근육진 망작무변지죄
迷淪苦海 深溺邪途 着我貪人 擧枉措直
미륜고해 심익사도 착아탐인 거왕조직
衆生業障 一切愆尤
루생업장 일체건우
仰三寶以慈悲 滌一心而懺悔
앙삼보이자비 력일심이참회

시방의 부처님과 진리를 펼쳐 보인 청정미묘법과
삼승(성문·연각·보살)·사과(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의 해탈승께 목숨바쳐 귀의하노니 원컨대 자비를 베푸사 가엾게 여겨 한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
다만 제가 참 성품을 어기고는 미혹의 흐름(무명)에 굽어 들고,

이 세상의 복과 명은 각기 원하는 대로 창성하고
내생에는 지혜의 종자, 신령한 보리의 묘목이 빼어나게 자라기를 한가지로 희구하나이다.

生逢中國 長遇明師 正信出家 壹眞入道
생봉중국 장우명사 정신출가 동진입도
六根通利 三業純和 不染世緣 常修梵行
육근통리 삼업순화 불염세연 상수범행
執持禁戒 塵垢不侵 毁譽威儀 蛇飛無損
집지금계 진업불침 엄호위의 용비무손
不逢八難 不缺四緣
불봉팔난 불결사연
般若智以現前 菩提心而不退
반야지이현전 보리심이불퇴

태어남에는 이 땅에 나서 두고두고 눈밝은 스승을 만나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되 동진(색을 알기전 15세이하)으로 도에 들게 하소서.
(또한) 육근이 밝아 이치에 통하고 신·구·의 삼업이 깨끗하고 가즈런하며 세속 인연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행을 닦게 하소서
금계를 굳게 지켜 털끝만큼도 침범치 않으며 행주좌와 중에 위의를 엄히 지키고 기어다니는 미물·나는 벌레의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으며
(불법을 대면키 어려운) 여덟가지 난을 만나지 않고 (바른법을 익히는) 네가지 인연에 빠짐이 없어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고 보리심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修習正法 了悟大乘
수습정법 료오대승
開六度之行門 越三祇之劫海
개육도지행문 월삼지지겁해
建法堂於處處 破疑網於重重
건법당어처처 파의망어중중
降伏衆魔 紹隆三寶
항복중마 소륭삼보
承事十方諸佛 無有疲勞
승사시방제불 무유피로

바른 법을 익히고 닦아 대승법을 깨달아 마치고
육바라밀의 행을 쉬지 않아 삼아승지겁을 넘도록 계속하며
곳곳에 법당을 세우고 천겁만겁의 의심을 깨고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삼보를 널리 번성케하며
시방제불을 섬기고 또 섬김에 조금도 피로함이 없게 하소서. 龍眼

"집착하고 분별한 업장·허물 참회 하오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청정행 닦게 하소서"

생사를 따라 회오리바람처럼 돌며 색·성을 좇아 탐하여 물들고,
십전십사로 유루의 인을 쌓고(몸과 마음으로 항시 번뇌와 악업을 지어 고해를 드나드는 인연을 쌓아 올리고)
육근육식으로는 망녕되이 끝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고해에 빠지고, 삿된 길에 빠져들고, '나'에 집착하고, 남(상대)을 분별하고 바른 길은 버리고 굽은 길만 찾아 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생에 지은 업장과 일체의 우심한 허물을 삼보의 자비를 우러러 빌며 일심을 기울여 참회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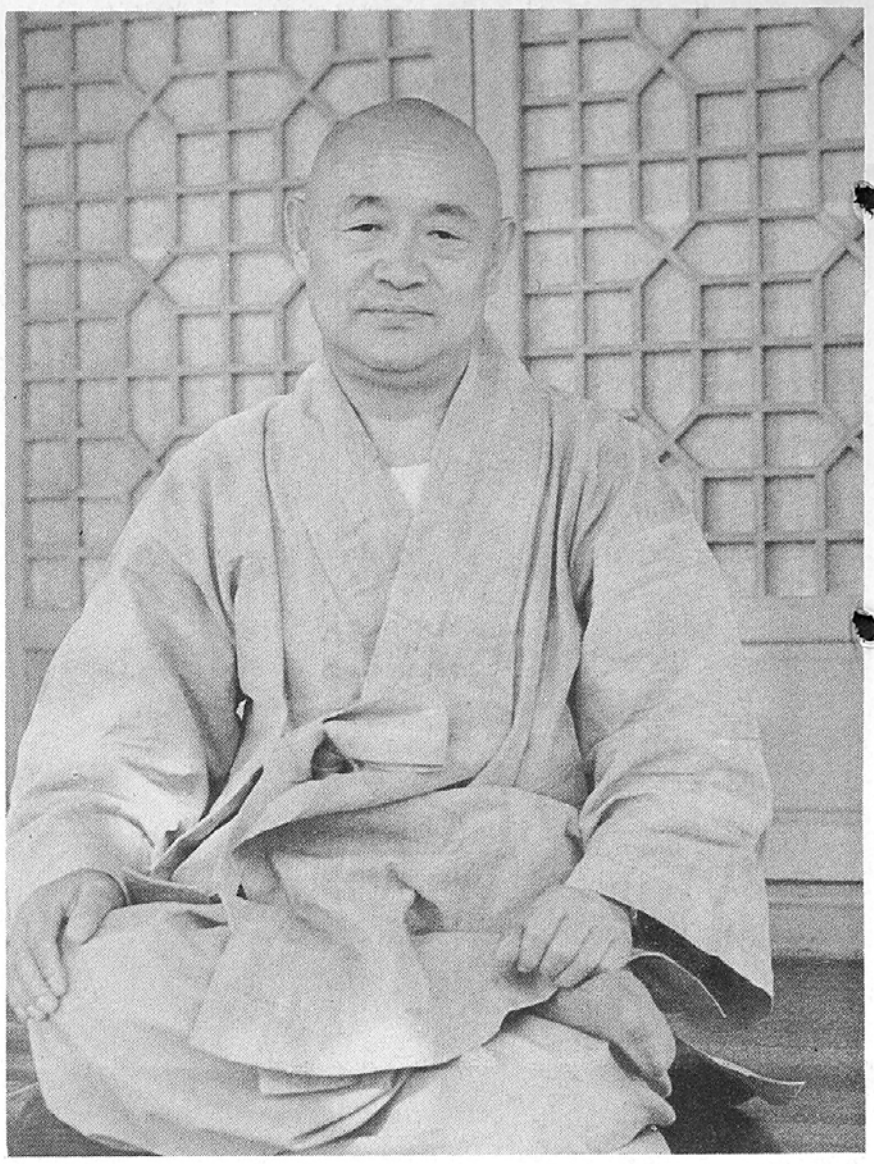
所願 能仁拯拔 善友提携
소원 능인증발 선우제휴
出煩惱之深原 到菩提之彼岸
출번뇌지심원 도보리지피안
此世 福其命位各額昌隆
차세 복기명위각원창륭
來生 智種靈苗同希增秀
래생 지종영묘동희증수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 건져주시고 선지식이 손잡고 도와주사
번뇌의 깊은 흐름에서 벗어나 보리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하옵시며

★ 지상법석

"욕심하나 단속 잘하면

이두스님 〈청주관음사 주지〉



약력
- 1945년 법주사에서 금오선사 은사로 출가득도
- 불교승가대 대교과,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방글라데시 치타공 팔리대학에서 〈금강경의 공성의 연구〉로 철학박사
- 현대시조시인협회 부회장. 해동불교 대학 학장

"불교는 삼세인과 믿고
자성 깨침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따라
과보 받는 것이니
남의 뜻에 의지하는
어리석음 버리십시오"

종교는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이라는 간단한 정의(定義)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성질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다함께 믿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한 민족에 국한한 종교, 한 부족에 국한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꼭 신(神)이 있어야 한다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신과는 아무 관계없이 유일한 목적을 갖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삼세인과(三世因果)를 믿고 자기 자성(自己自性) 깨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 자체가 남의 뜻에 의지하며 어떻게 되고 되어가는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지은 업(業)에 의지하여 과보(果報)를 받는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의 책임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때로 무엇이 있다고 보는 것은 미신(迷信)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원시신앙(原始信仰)은 무격(巫覡)이라고 합니다. 여러 무당과 남자 박수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네들은 신명(身命)을 모두 스스로가 믿는 신에게 달기고 오직 태어날 때도 신의 점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할 것이며 괴롭게 살거나 즐겁게 사는 것이 모두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의 헛점은 사회의 적응체제로서의 이론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열강(熱强)은 마치 광신자(狂信者)와 같습니다. 혼신(渾身)의 신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밖에 무엇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믿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번뇌와 강상, 집착이 공(空)하고 보면 외부의 경계는 본래 실재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공한 이치를 발견하면 이것은 일체가 무애한 본래경지가 체득된다고 합니다. (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내심에 집착이 생겨나서 일체환상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는 미신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미망의 사지(死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더라도 잘못된 스승을 만나 외상(外相)에 집착해서 염불을 한다면 어쩌다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집착의 결과로 일어나는 환상에 매혹되어 광신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하여 색채만 불교지 실제는 부처님 뜻에 역행하는 신도가 부지기수며 이를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런 맹신을 시급히 정리해야만 됩니다. 잘못 믿는 무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명(敎名)을 들고 또 감화력마저 충실하여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인류 전체에게 마땅히 제시해야 할 비전(Vision)은 불법밖에 없고, 불법중 정법이 있을 뿐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현장을 떠나 일체사가 처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묻기를 어떻게 공부를 지어 나가야 하며 누구에게 의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물었을 때, 자귀의 법귀의(自歸依 法歸依)를 말씀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법을 광명으로 삼고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까닭에 일체의 생사와 윤회가 생긴 것인데 자기를 잃고 남에게 팔려 구원과 광명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 경계를 잘못 알고 경계에 속고 있는 그릇된 행위로, 자기를 잃고 경계에 집착함으로 끝없는 윤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일정하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루에 열번 변하는게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탐(貪) 진(眞) 치(痴) 세가지 마음이 근본됩니다만 여기로부터 뻗어 나가는 마음의 갈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백팔번뇌 팔만사천가지 번뇌로 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 많은 번뇌 망상이 쌓이고 덮인 속에서 살고 죽고하는 습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최초의 원인은 모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 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 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드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밭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참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학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 달마대사의 거보(巨步)를 잇지를 미조신사의 빛나는 족적 /
조 JOSHU —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붓다를 조각해 내는 홀륭한 정신과정의 소유자 조주의 선과 명상의 세계 /
임 RINZAI 제 — 고금을 통하여 선(禪)어록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임제선사의 생생한 육성의 기록 /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대원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지상법석 ★

청정한 본래마음 회복”

‘성불하고야 말겠다’ 결연한 목표없으면 예불·공양해도 진정한 불심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것으로’ 끝없는 탐욕이 고통 만들어 자기를 모르고 밖에서 광명 찾으면 잘못된 믿음

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하자는 탐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어리석어질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끝없는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탐·진·치 이것을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삼독심은 마음병의 전체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병을 치유하는 약도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마음병약은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 사천 법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이것을 전부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 탐·진·치 삼독에 귀결되고 또 집약하면 탐심 하나에 귀결됩니다. 남의 것까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은 깊이 병들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보면 성낼 일도 없고 어리석은 일을 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 집니다. 지나친 욕심 하나를 단속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어느 다른 곳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진짜 망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도 참고 성내는 일도 참고 어리석음을 생각지 않는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나면 모두가 없어지고 탐진치가 없는 본래 마음으로 확연해지는 경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안정이 안되어있는 망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에 자족하고 괴로움을 달게 받는 정도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되면 이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이 발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쉬지 아니하고 나가면 성불까지 하게 됩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처음 발심했을 때에 분득 정각을 이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성불의 결과는 있고야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마음은 청정하며 번뇌와 망상의 고통이 없는데 망상과 번뇌를 해소시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함이 불교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병의 원인을 모르고 본래 마음을 찾자는 의지가 없고 성불해 보겠다는 이상이 없다면 아무리 법당 부처님상 앞에 예배 공양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진정한 불심이 못되는 것입니다. 불심이란 미약하고 한정이 있는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한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 함께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금생이 다하면 육신은 늙어 죽지만 잠재의식은 물질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다시 내생의 숙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하여 불교인은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노력이 아니고는 조금도 대가(代價)를 생각지 아니하는 인과정신이 불교정신입니다. 신(神)의 주재(主宰)나 창조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짓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투철한 인과의 정신과 자기창조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몸은 여러번 죽고 태어나고 하지만 마음의 작용인 업식의 실체에서는 전생 것을 금생으로 받고 금생 것이 내생으로 이어져 관계적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이 중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윤회는 그와 같아서 잠재의식 속에 인간이 갖는 도덕과 윤리가 전혀 없어져서 마치 짐승과 다를바 없게 되면 살아서도 인간사회에 함께 살 수 없고 죽으면 그러한 잠재의식적인 스스로의 유혹에 이끌리어 짐승의 몸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업력입니다.

만류는 견인의 힘이 있듯이 무형적인 잠재의식은 인연성의 업력(業力)에 이끌려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업의 성질에 따라 전개되는 세계가 육도중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체와 윤회의 근간이 되는 인과의 법칙을 확고히 체득하여 스스로 업심을 정화해 가야 합니다. 비록 윤회에 빠진 중생적 인간이 되었더라도 악도에 윤회하지 말고 생생에 선업과 선한 세계에 태어나는 노력과 회향이 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시자(施者) 수자(受者) 물질(物質) 세가지의 움직임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스님이 절에 거주하면서 수도와 포교로 민중에 정신적 이익을 주지만 물질생활의 수입을 별도로 장만하는 것은 안됩니다. 스님은 법을 교화하는 반면에 교화를 받는 불교 신도들이 물질을 희사해서 생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희사를 불교에서는 재시(財施)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교화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또 물질에 한해서 주는 것을 시자(施者)라고 하고, 받는 것을 수자(受者)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는 시물(施物)이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의 성질이 청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상대자에게 베풀더라도 집착이 없이 순수해야지 불순한 생각이 있거나 말못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주의 형식을 통해서 보시를 가장 한다면 이는 상당한 죄업에 속하게 됩니다. 또 주는 사람은 비록 순수하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목적과는 반대로 불순하게 사용하거나 방탕하게 소비한다면 더큰 죄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은 주고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나 순수하다 하더라도 주는 사람이 죄악을 지으면서까지 얻은 물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을 받는다면 받는 사람에게 크나 큰 악업으로돼 악업의 인과고(因果苦)를 함께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 때문에 삼륜청정(三輪淸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밝힌 삼세인과(三世因果)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으로써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위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동정으로 얻어 먹은 것은 앞날에 감사하면서 갚게 되지만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옛말에 그 집의 소로 태어나서 일생을 일하고 고기까지 바치는 인과응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얻은 재산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망하게 될 진데 깊이 반성하고 살지 아니하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남의 것을 공짜로 얻고자 하지말고 남에게 주는 것을 주더라도 아니갚아줌을 원망하는 것도 삼가해야만 될 것입니다. 불교 생활에서도 정당한 보시와 정당한 받음과 물질자체를 보시하는 자가 믿음에 있어 죄업이 없는 순수한 노력의 물질이어야만 합당하고 서로 복되고 청정을 기약하고 성불함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밝은 인과생활을 해야만 맑은 마음이 생겨수도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활동이 무리를 지어 인생의 근본진리인 진정한 법을 무시하므로 어지러운 잡된 신앙이 많이 생겨납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 하루바삐 정법의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정신(報恩精神)을 발휘하여 우선 스스로 해이해진 불심을 일깨워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에 불법을 안다고 해도 아직 미진한 사람, 또한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불법에 뜻을 두지 않으려 하는 이웃들에게까지 성의를 다바쳐 이 정법의 길을 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혼자 갖는 불심을 대중에게 퍼지도록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도(成佛道)하자는 대원(大願)을 이루는 불심 심기 운동을 합시다.

“시자 · 수자 · 시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베품에 있어 집착없이 순수해야 하고
받는 사람도 씀씀이가 불순하면 안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8

양 형 진

최초의 생명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년쯤 된다. 태양과 지구의 나이는 각각 약 50억년과 45억년쯤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년 전에 탄생했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생명 진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유전에 의하여 생명의 속성이 지속된다. 물론 유전과 진화라는 것도 대단히 경이로운 과정이지만, 지구가 생겨난 이후 지구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극적이며 중요한 사건은 역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일일 것이므로 이는 생명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사든 지질학과 같은 자연사든) 역사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사건을 오늘날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만 원시 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최초의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지구의 진화 과정과 연관하여 생각하여 볼 때, 원시 지구의 대기는 메탄과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환원성 대기라고 추정된다. 오파린은 이러한 원시 지구의 상황 하에서 유기물 합성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관한 실험은 1953년에 밀러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는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의 혼합기체를 일주일 동안 가열 순환시키면서 전기방전을 시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과 포름알데히드, 시안화 수소 등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가열과 전기 방전은 각각 원시 대기의 고열 상태와 공중 방전을 재현시킨 것이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물의 참여없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기물이 원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점차 농축되었다.

10억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이들 간단한 유기물들은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하였으리라고 추측한다. 즉 원시 대양에 녹아 있는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합성되고 탄수화물은 다당류를 만들어 내며 퓨린이나 피리미딘 유도체들이 핵산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또한 그 개연성이 실험으로 확인된다.

“무기물서 유기물 생겨나듯
인연 화합에 의해
무자성 생명 탄생”

오파린은 원시 바다 속에 녹아 있는 핵산이나 단백질의 고분자 화합물로부터 코아세르베이트라는 원시 생명체의 시초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포의 막과 비슷한 단백질의 막을 가져 주변과 경계를 이루며, 세포의 삼투작용과 비슷한 현상도 나타낸다. 폭스도 이와 비슷한 설을 주장한다. 그는 단백질이 없이 DNA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자기 복제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미노산을 200℃ 에서 가열하였다가 식혀 단백질과 유사한 프로티노이드를 얻었으며, 이를 바닷물에 녹인 후 가열하였다가 식혀서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 크기의 마이크로스페아라고 불리우는 입자를 얻었다. 이것은 막을 가지고 있으며 생장과 증식, 촉매작용 등을 하므로 원시적인 자기 복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코아세르베이트나 마이크로스페아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원시 생명체로 발전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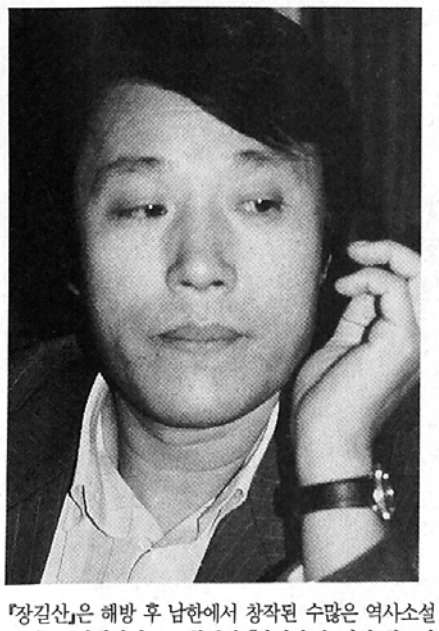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일련의 실험이 성공하였다고 해서 원시 지구에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기물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된 후 생명이 탄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무기물로부터 생명의 원형이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는 맑스가 주장하는 ‘양의 질로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을 데우면 온도가 상승하는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온도가 100℃ 에 이르면 이 양적인 변화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나고 다시 그 유기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이러한 질적인 변화에 비유된다고 하겠다. 양의 질로의 변화든 생명의 탄생이든 이러한 모든 변화는 사물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오직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 위의 생명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한다면, 생명의 역사에도 또한 성주괴공의 진리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창작과비평사의 베스트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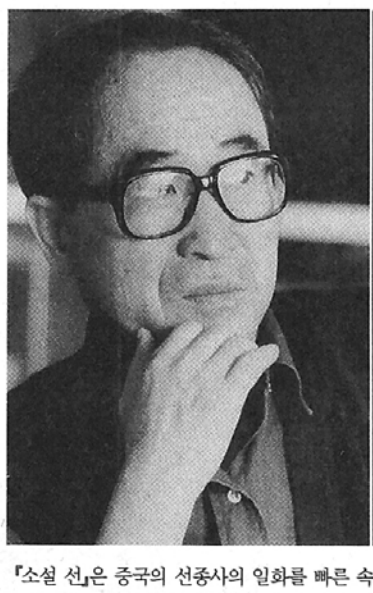


장길산
황석영 대하소설
개정판/전10권

『장길산』은 해방 후 남한에서 창작된 수많은 역사소설 가운데 단연 우뚝하다. 역시 그 한계까지도 포함해서 『장길산』은 남한 최고의 역사소설이다.
— 최원식(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교수)
값 각권 6,500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2
유홍준 지음
값 6500/7000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지음
값 6500원



소설 禪 1,2
고은

『소설 선』은 중국의 선종사의 일화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내면과 끝없는 우주의 공간을 아우르는 정신의 호탕함도 매력이고, 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기인들의 등장과 해후는 그 자체가 소설적인 사건을 만든다.
— 조선일보 8월 15일자
값 각권 6,500원

고은 불교 대하소설

노승 회월당의 다비

"도덕이 높은 분을 친견하는데 살아계실 때와 함께 왕생하신 뒤에도 친견하셔야지요. 석씨 가문에 어찌 생사가 따로이 겠습니까"

수월이나 파현이 좌탈입망의 회월당 법구를 살필 때에도 그 눈감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장난스런 인상을 찾을 수 있었다.





54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는 고산지대인 신계사에 도착하기까지는 표훈사 노승으로부터 며칠동안 헤어날 수 없게 간혀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그 노승으로부터 "한번 올라가보이"라는 어정쩡한 승락과도 같은 말을 들은 뒤 걸음에 불을 붙여 길을 재촉한 것이 몇번이었는지 몇번인가 딴 길로 가는 고생을 겪는 동안에도 그 노승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노승은 마치 누구에게 들어붙는 잡진 귀신 같았다. 그 자신의 말대로 하얀 수염이 턱을 덮은 것도 아니고 허리가 화선으로 꼬장꼬장한 것도 아니게 어햇죽지부터 사막의 짐승인양 구부정하였다.

신계사는 실로 소슬하였다. 그곳에 신계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절벽지대인지라 마치 하나의 암자가 잘못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우리도 목을 매다는 꼴이 되겠어요" 라고 파현이 너스레를 떨었다.

"이왕지사!"

라고 수월이 앞장서서 신계사 요사채에 대고 문안을 전하였다. 모든 것이 마를대로 마른 뒤여서 더이상 마를 것이 없는 상태의 쓰라리게 추운 높은 지대여서 다른 절의 규모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적요한 도량이었다.

요사채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 그 일대의 나무들도 차라리 풍악(楓岳)이라는 금강산의 별칭과 동떨어진 채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건너뛴 듯이 나무잎 하나 달리지 않은 빈 나무들만 벙어리로 앙상하였다. 본질이란 이런 것인가. 빈 가지들이 본질이고 잎새 우거진 것이 현상인가. 아니면 이 빈 가지들의 처절한 실재조차도 현상일 뿐 본질이란 끝내 이 세상의 육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인가.

용수(龍樹)가 말하는 중론(中論)속의 자성(自性)과 타성(他性)이란 도대체 이 지경에서 무슨 이름놀이인가. 그것은 이름놀이자 말놀이가 아닌가.

먼 훗날 중론이 말의 철학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거니와 한갖 빈 나무가지 우듬지 위의 한없이 높은 창공의 그 묵언은 무엇인가.

"객승입니다."

"객승 문안드립니다."

"객승, 선지식을 친견하려 올라왔습니다."

객승을 맞았다.

"우리는 회월대화상을 친견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러자 사미승이 대꾸하였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알맞게 오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미승을 따라 토굴 안으로 들어섰다. 향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 향내는 밖의 차고 맑은 공기 속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그 토굴 안만을 채운 나머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안내하는 사미가 말하였다.

"한나절 전에 왕생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어?"

"무엇이라고?"

사미승이 아리따운 얼굴에 희미구레한 미소를 그리며 한마디 말을 발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도력이 높은 분을 친견하건대 그분이 살아계실 때와 함께 그분이 왕생하신 뒤에도 친견하셔야지요. 우리 석씨(釋氏—석가모니) 가문에 어찌 생사가 따로이겠습니까?"

수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월과 파현도 그 토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신계사 대중 5명은 다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절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 두마리까지 그곳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노승 회월당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회월당의 화장이 마칠 때까지 나흘을 지낸 뒤에야 두 객승은 슬슬 내려갈 생각을 하였다.

신계사는 하루 두기의 공양 이외에는 일체의 간식이나 별식 따위가 없었다.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오는 양식을 함부로 축내서는 죄업이 무거워진다는 생각에도 그 까닭이 있겠다. 그뿐 아니라 이런 순수한 도량에서는 만족한 밥과 만족한 잠으로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의 중들은 하나같이 몸에 엽전 한 잎도 지닐 수 없었다. 재물은 크고 작고의 차이 없이 중의 몸에 지니는 것이면 억겁의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할 일이었다.

그러고보니 회월당은 가장 엄중한 계사(戒師)이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계율보다 자유분방한 무애의 경지와 승려본기의 정신적 지주(支柱)로 소문이 난 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수월이나 파현이 좌탈입망(坐脫入亡)의 회월당 법구(法軀)를 살필 때에도 그 눈감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인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파현이 행여 도피안사와 산중 아래에서 만난 그 허깨비와도 같은 곰보처사나 표훈사 누각의 노승과 연관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없앤 것만으로도 관히 안도감을 가지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군. 그런데 수염은 없으시지?"

그들의 은근한 대화를 듣고 있던 사미승이 끼어들었다. "며칠 전에 그 수염을 다 깎아달라 하셔서 소승이 깎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헤 그 수염에 중금한 사연이라도 있으셔요?"

이렇게 해서 신계사를 찾아온 그들의 목적은 생(生)으로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死)로는 이룬 셈이었다.

다시 신계사 요사채 섬돌에는 나막신이나 짚신 따위가 가지런히 놓이게 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하루내내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도량이라 산중에는 달력도 없다는 말이 화두가 아니라도 되었다.

다른 선승들은 중년으로써 그만그만하였다. 두 객승의 처음과 끝까지의 말상대는 오직 사미승 하나였다.

그가 떠나려는 객승에게 말하였다.

"부디 허공이나 실컷 붙잡으십시요. 소승도 그럴까 합니다."

이 말은 당나라 마조 도일(馬祖道一)의 그것과도 멀리 내통하고 있었던 것인가.

마조는 한 하승(學僧)과의 문답에서 바로 허공 붙잡기를 말하였다.

"그대는 60권 화엄경을 잘도 가르친다지?"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아직 가르칠줄 모르는군."

"어째서 그럽니까?"

"마음은 재주부리는 광대, 의식(意—意識)은 광대놀이에 장단맞추는 것인데 어찌 그것으로 가르친단 말인가?"

이 말은 문자는 손가락이니 어찌 손가락만 핥고 배가 부르기만을 바라겠는가라는 뜻인가.

"마음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허공이 가르칩니까?"

"오히려 그렇겠다."

이 격렬한 대화의 거량(擧揚)에서 하승은 마조의 선기(禪機)를 인정하지 않고 뛰쳐나가려다가 크게 깨닫게 되자 마조에게 절을 하였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을 해서 무얼 하느냐."

이를테면 아는 것도 그대가 알고 모르는 것도 그대가 모를 따름인데 어느 놈에게 절하고 어느 놈에게 묻는다는 것인가. 그만 해둬라 하는 판세였다.

여기에서 학승도 한걸음 나아갔다.

"하하하 웃음소리를 허공이 좋아 하는구나."

이런 옛날의 사연과 상관없이도 수월과 파현은 신계사를 떠나면서 그들끼리의 너털웃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송장 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로다."

"공부는 송장공부가 으뜸 아니오?"

라고 파현이 맞받았다.

"송장공부라… 송장에도 집착이 없어야 하거니와."

"그럼 세상에 널린 화두 붙잡고 있는 선방 건달들의 집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집착이라 하면 집착이 다 소멸되겠군."

이 말을 하자마자 수월이 헛디딘 발 때문에 바위너설로 낸 길 아래 비탈에 미끄러졌다.

영락없이 추락해서 저 아래의 피투성이 송장이 될뻔했지만 질긴 목숨이어서인지 박달나무 뿌리에 걸려서 거기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파현은 이런 때 다시 태풍속의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침착하였다.

"거기 좀 계시지요. 마구잡이로 지혜를 내는 일은 지혜가 아닙니다."

말에 들어있는 뜻은 만만치 않았다.

그런 파현이 냉큼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주 굵직한 참나무를 분질러서 가지들을 쳐냈다. 그 참나무를 수월 쪽으로 내려보내어 그 끝을 두 손으로 쥐도록 하였다.

파현이 냉큼 잡아 올렸다.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라고 그가 큰소리를 했다. 그 메아리도 컸다가 작아져 갔다.

그림 · 조향숙

"노스님께서는 한나절 전에 왕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고은장편소설

시가 죽으면 시인이 살아나고
시인이 죽으면 시가 살아난다.
대시인 고은 선생이 바라보는 파운(破韻)의 농시(弄詩),
김삿갓의 시 세계와 방랑

내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김삿갓의 방랑 자체이다.
방랑이란 그것의 실질은 낭만적이기보다
아주 힘든 노동으로서의 행위이다.
방랑정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심성 안에 잠겨 있는
오랜 현실 탈출의 항수(恒愁)인지 모른다.
방랑정신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償性)의 구현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①②③ 각권 값 6,500원

김삿갓 (1·2·3)

풀빛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76-87 정인빌딩 3층 전화 362-6972, 363-5995 팩스 393-3858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스님과 똑같이 자성참구 합니다"

12월 7일부터 동안거 결제

'나는 누구인가.'

반복되는 일상속에 자기를 찾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는 12월 7일부터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시작되는 동안거를 앞두고 재가불자를 위한 재가선방이 문을 열 채비에 한창이다.

지난 여름 하안거때 50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했던 해인사 원당암은 동안거에 참여할 입방신청자를 현재 접수중이다. 원당암은 특히 안거 결제시에 해인총림방장 혜암스님의 화두법문으로 더욱 굳건한 선수행을 이끌어 오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도 안거때마다 보살들을 위한 선방을 열고 있다. 용화사는 평상시에도 일반인들이 선방을 이용할수 있도록 1년내내 문을 열어놓고 있다.

재가자의 안거도 스님과 다를바가 없다. 저마다의 화두를 들고 똑같이 정진수행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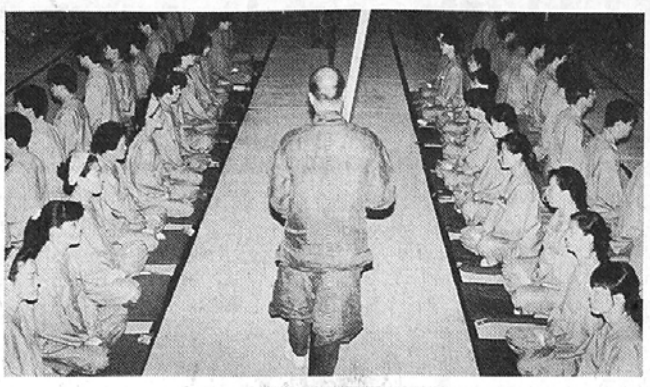
재가자들의 안거수행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정년퇴직한 거사와 자녀를 장성시킨 주부들은 해인사 원당암과 같은 산사의 선방을 찾아 스님들과 똑같이 3개월간 선수행에 정진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조계사 옆에 있는 수선회와 같은 도심의 생활선방을 찾아 하루 몇시간씩 수행을 한다.

6년전부터 시민선방으로 개방되고 있는 선학원 중앙선원도 동안거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선학원 시민선방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에 맞춰 틈틈이 찾아와 참선수행의 기초를 다지고 생활의 활력을 얻기도 한다.

도심선방에서는 새벽이 아니더라도 정적에 둘러싸인채 가부좌를 틀고 정좌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재가 수행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도심선방은 많은 불자들이 선수행을 통해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두가 바로 수행이요, 정진이라는 한결같은 생활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불자들은 선수행을 통해 한결같은 생활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해인사·용화선원·시민선방등 입방 채비

거사·주부불자 직장인등 '참선수행' 열심

◇재가불자 선방

인천 용화사	032)872-6061~4
해인사 원당암	0599) 32-7308
해인사 용탑선원	0599) 32-7206
부산 해운정사	051) 746-2256
부산 해인선원	051) 628-7200
통도사 취운암	0523) 82-7082
수선회	02) 732-5960
선학원 시민선방	02) 732-3327
한국불교발전연구원	02) 736-6202
불교신행연구원	02) 587-6613
천축사	02) 954-1474
회계사	02) 902-2663

사찰 신도회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전통메주 주문제작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통메주판매를 해오고 있는 봉은사는 오는 연말까지 전통메주제작을 신청받아 판매한다.

구룡사도 12월 중에 전통메주를 판매할 예정이며 금강경독송회도 메주를 직접 제작 판매한다.

경국사는 이미 메주콩 1백가마를 사놓고 메주제작준비에 한창이며 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사찰신도회·생협 전통메주 주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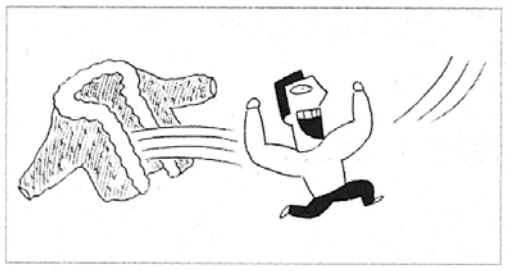
석왕사 생협은 전통메주 판매와 함께 김장철을 앞두고 무농약 배추 1천여포기를 산지와 직결해 판매한다. 대부분의 사찰은 메주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사찰재정적립금으로도 사용한다.

▲봉은사(545-1448) ▲구룡사(575-7766) ▲금강경독송회(931-9900) ▲경국사(914-5447) ▲석왕사생협(032-668-0072) ▲축서암(0523-82-0011)

이리후 건강칼럼 <42>

스트레스 극복

'일상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면역처방



질병을 이기자면 우리 신체내의 면역기능이 높아야 한다. 같은 병균이 침입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면역기능 때문에 그렇다. 가령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했다고 하자. 우선 피부는 이런 병균의 침입을 막는 장벽 구실을 한다. 이런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병균은 소화기에서는 위산, 호흡기의 점막, 이물질을 운반하여 배설하는 비뇨생식기등도 병균을 막는 첨병이다.

그러나 이런 외관상의 기능보다 훨씬 복잡하고 독특한 혈액과 임파결절이 관여하는 면역기능이다. 이 면역기능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스트레스와 면역기능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도 연구되고 있는 차제에 미국에선 헨리 드리히라는 학자가 스스로 면역기능을 극적으로 극복할 힘을 기르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 힘이 바로 면역기능과 직결된다는 가설이다. 자신의 면역기능을 기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면 된다.

첫째 현실상황에 참여하고 관계를 가지며 표현하는 성격으로 자신을 바꾸어 보는 일이다. 속으로 담아만 두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 둘째로는 자신의 고민이나 비밀을 잘 털어 놓도록 한다. 셋째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위협이나 위험으로 받아들여 극복하는 습관을 갖는다. 넷째 자기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가져보자. 다섯째 사람을 믿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즐겁게 한다. 일곱째 자기 자신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통찰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일곱가지 행동양식 가운데 한두가지는 행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몸에 밸 정도로 습관화되어 있는 행동양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옮겨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이제 우리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우리들의 면역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전환시키면서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 '사랑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말이 허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안락의 장 *
마음의 고요
보다 더한
안락은 없다

이 향 원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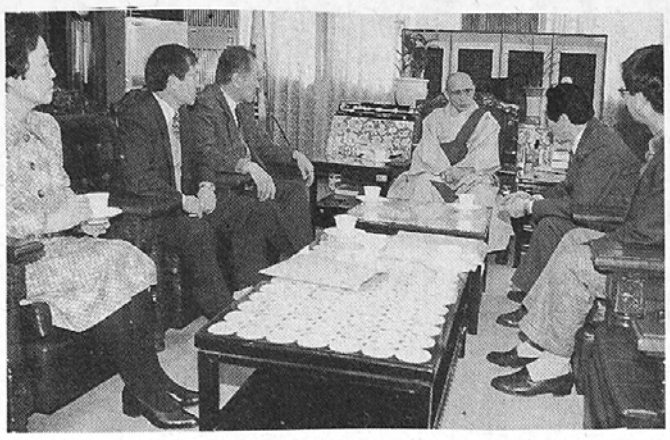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지난 21일열린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 관계자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사진 좌로부터 윤용숙회장, 박광서교수, 이기영위원장, 한상범교수, 김형균 사무국장. 〈사진=고영배 기자〉

경주고속철 우회 12월 국회청원

월주스님등 관계자 21일 간담회

12월중으로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기영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장등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조계종총무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에 원칙적인 의견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동남아불교국가 유네스코등과의 해외공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의 고문으로 있는 월주스님, 추진위원장 이기영박사, 부위원장 한상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상임추진위원 박광서 생명공양실천본부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김형균 불지사대표, 운용숙 여성문제연구회장 등 참석자들은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되면 국회청원등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며 공청회 개최 등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날 월주스님은 "명분상으로는 대구~부산 직행노선이 타당하나, 경주 포항 울산 지역의 주민 정서를 감안해 경주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전국사찰에 공문을 시달, 종단차원의 협력하에 불교적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향후대책을 함의했다.

이기영 추진위원장도 "불교계등 문화·학술단체가 하나로 결집, 서명운동으로 의견을 모아 건교부·문체부가 제시한 노선을 백지화하고 경주도심에서 15km 이상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경 프랑스에서 열리는 '고속철도와 지역환경' 세미나에도 참석, 우리의 문화적 위기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사찰 서명운동 참여
입법공청회·세미나열기로

김형균 사무국장은 "경주가 세계 10대 문화유적도시로 지정된 시점에서 고속철도 문제가 터져 나오자 문체부가 서둘러 제시한 안이 건교부가 5년전에 수립, 폐기했던 기본노선"이라고 말하고 "건교부의 계획노선 변경시의 추가경비와 공기연장도 70%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계변경에는 6개월의 기간과 1~2천억원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범 부위원장은 "경주 고도보존 관련 입법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트 보존운동처럼 유네스코등 국제적인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현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에 가입한 단체는 191개이며, 서명 참석인원은 4만5천여명에 이른다. 〈김재경 기자〉

"천년古都, 지켜야 할 민족의 고향"

BBS 특별 좌담회 지상중계

불교방송은 지난 18일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에서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의 사회로 이기영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장과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와 관련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불교학계와 고고학계의 원로인 두 학자의 좌담을 중계한다. 〈편집자 주〉



◇이기영박사



◇한병삼씨



◇사회 김상영교수

▲사회=경주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노천박물관입니다. 최근 정부의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강행방침으로 천년고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느낀 심정은 어떠신지요.

▲이기영=한마디로 위정자들의 문화정책 부재를 느낍니다. '문화'와 '체육'을 합쳐 문화체육부를 만든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최근 방한한 프랑스 극동학원의 학자들은 우리 관료들의 고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첨단의 테제베 고속열차를 최고로만 안다는 말입니다.

인간 정신에서 나온 문화유산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존경받는 가장 귀한 재산이 경주의 석굴암과 남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2백30회 이상 고속열차가 지나간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줄 몰라

▲한병삼=우리나라 정부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그리는 것만 중요시합니다. 말초적인 예술만 중요한 줄 알다보니 광주비엔날레가 경주문화재보다 더 소중한 줄 압니다. 경주박물관장을 10년간 역임하는 동안 경주의 변화를 제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내가 경주를 떠나고 나서 선도산에 학교가 들어서고, 명일산 동쪽 뒷편의 대형 쓰레기장, 분황사뒤의 18층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더니 이제는 고속철도까지 들어선다니 기가 막힙니다. 차라리 경주를 공업도시로 만들고 석굴암 본존불을 박물관에 모셔놓고 그곳에 가라오케나 설치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화재가 있으니까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위원회의 결성의미는 무엇인지요.

▲이기영=경주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겐 백두산 다음가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경주는 개인의 마음의 고향과 아울러 민족정서의 고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국민에게 널리 펴졌다면 이런 날벼락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우리처럼 문화인과 문화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마구니 취급하고 문화재를 무시하고 경마장을 지어 돈을 벌겠다는등 경주를 관광상품으로만 아는 이상 문화에 대한 무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주의 모든 산들은 삼국통일을 이룬 건전한 민족정신이 서린 성산임을 국민들도 인식해야 합니다. 고속철도 노선을 확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하나도 듣지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서명을 가지고 집약된 의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정부노선 여론수렴안한 졸속정책
풍치·문화재 살릴 제3안 채택 마땅

▲사회=정부에서는 노선문제를 상의하러 온 적이 있습니까?

▲한병삼=건교부의 계획노선과 관련, 고속철도건설본부장에게 사적발굴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뒤 문화재위원회와 각계의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경주시민의 희망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우회통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게 경주경실련등의 '제3의 안'이 아니겠습니까. 건천지역에 잠시 섰다가 터널로 경주외곽을 통과하면 경주지역의 풍치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산근처에 기차역과 도로망이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 '역사고도 자연풍치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놀랍게도 국회 문공위가 아닌 건설분과위원들이 만들어 국회입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민들에게 대한 적절한 배상을 충분히 고려했지요.

▲사회=문제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는 노선변경시의 경비부담과 공기연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민족정신 서린 성산

▲이기영=정치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선결정시 각계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먼저 결정하고서. 큰일났으나 하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니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은 얼마후에 '고속전철이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누가 가든 우리의 문화적 위기를 알려야겠습니다.

▲한병삼=얼마전 문화재관리국회의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이 설명하길 노선을 변경할 경우 경비가 1조5천억원, 공기가 2년반이 지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가 1조5천억원 짜리밖에 안돼냐' '논바닥에 아직도 엄청난 유적이 묻혀있는데 발굴비용과 공사지연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프랑스의 학자 디 소르망씨는 〈자본주의의 몰락과 신세계〉란 저서의 '한국독자를 위한 서문'에서 한국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임금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상품의 문화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남산엔 미래 등불이…

▲사회=경주문제에 민족문화의 사활이 달려있군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탁할 말씀은.

▲이기영=경주 남산 곳곳에는 수행자들의 정성이 담긴 부처님들이 신령스런 기운속에 서 계십니다. 여기에 미래사회의 등불이 될 정신이 있습니다. 동·서양에 자랑할 원효대사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잘 모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하는 일이 안돼는 일로만 가고 있어요.

▲사회=불교학계와 고고역사학계의 의견이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임을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이기영=경주는 조상의 얼이 서린 곳입니다. 고대문화를 아끼는 것이 조상을 받드는 일임을 알아야합니다.

▲한병삼=불교순례자의 고향으로서 2백20여개의 사지가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황룡사지 주위의 논에 길바닥이 보입니다. 남산의 마애불들은 항상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경주인의 불교관과 미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훼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 성지 순례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동참금 : 160만원
· 일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 등)-서울

황산·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동참금 : 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④

도심통과는 '눈 먼 정책' … "15㎞밖 우회하라"

서명자 명단

45,082명 서명 (1995년 11월 22일 현재)

불일회

전현영 전경민 이덕숙 이장행 양수경 이정록 장석윤 장근양 최현영띵 이철한 송미옥 최홍식 박희우 정양옥 오정아 주영대 이승일 손경미 김청훈 김태수 김광필 손경종 정순영 강상아 박남준 고정은 박미현 지수연 박주영 곽소라 김지은 류승희 감소연 임수진 김정미 김한나 박수정 김보경 박연아 정수정 이청라 정은영 조선영 신희경 정유진 서명진 김선현 강남이 양경민 정길자 송선심행 윤여옥 환경희 김옥영 이무일 이경아 강성구 강경훈 배매순 한도덕화 양복순 백연화 이재승화 유 규 김재광심 정보리심 홍일심화 김광희 정자성희 안정희 배정자 이우소금 박성희 강경화 송이예 박성자 김진순 김대익 김대열 김지태 유태영 김종은 김영숙 백인택 홍성협 박승봉 박실지장 김경식 이영옥 김관수 김명숙 구관보 구은경 이벌세 유재갑 조혜정 김준수 신미지 강춘천 이혜경 문종열 김진호 최수선 나종흥 이성동 조용대 김진열 임상용 박할영 채종화 김동필 강정식 정정숙 정백수 김동훈 조서윤 송선미 강영진 하성진 이연미 김수진 양정인 이태춘 최원자 송건원 이현주 염기수 최병진 김순옥 정해진 이희열 최혁재 최광석 여철구 김영곤 김태경 송기옥 유정옥 정동헌 정진순 차장북 변현진 김소연 한명자 김봉남 유청정 심 홍 성재화 배명순 이준희 박재열 박진흥 박성형 허 민 최용호 김동익 한민옥 이학용 강정호 서경주 최종혁 강진수 강원봉 오성택 조동주 김성기매 정연숙 김선흥 주시춘 김만철 지천대로 권혁범 양팽진 박형주 신귀미 정이경 서진열

명성여중

우하수 안은자 강복영 김경민 이정순 조성훈 이향희 오순자 김옥경 안치웅 조영숙 문영희 문명은 곽태성 양한재 이정구 장영호 민경환 신남필 최순철 유혜련 김난현 유혜영 이애숙 이원이 김기철 김형련 김명자 김영은 최신원 백금자 장경숙 박현정 이영숙 안주희 강원자 서연석 정남수 김계성 이지은 김홍숙 김희실 신매경 황 민 최영권 윤광호 이종근

공주사암연합회

김용관 손정배 박재순 김현숙 강경희 박은미 여미희 이인앵 김종운 이준진 유흥식 홍순범 박범서 조상구 김정기 이종섭 윤언배 박현구 오영민 강수정 윤환권 목정돈 정영자 최미영 오현정 최철이 환인진 조건중 윤종수 안종섭 안정미 홍현경 김국희 김미정 진수복 김현웅 남미정 강은선 이화영 김수진 박주로 강민석 신진수 권관혁 박현영 조 현 김원명 송원순 고혜는 유수홍 임정례 윤희재 유문재 이복희 유현정 유종선 김홍곤 정순덕 연인자 조영숙 안순옥 김화자 김재길 윤영숙 이승구 이승제 김성태 김종철 김혜림 이순애 조원형 성진숙 조 형 조선형 조수연 박지연 김수연 하영숙 박선희 윤석규 강신자 양춘옥 노희도 김채환 조난영 강춘계 서종문 성수아 윤승이 최영선 박순아 김성숙 민혜정 유재희 김선탕 조효순 안정미 이은전 최수미 정진아 장지이 도미나 신지영 최지선 진상희 이현주 이경민 송형근 김덕로 박진형 조한웅 이채희 오유진 양재환 박찬영 송인산 금투효 김효경 윤승민 박수민 이상도 이춘석 김금림 윤태희 윤성준 임철권 김도희 구은영 안정미 안일철 안승희 유은준 이내헌 이승구 이동구 유숙자 권정희 선연실 김문숙 강형주 구자희 이현숙 김은주 구본익 구은화 구자풍 장나영 강희선 임수진 심인순 김정혜 이보림 이보영 김미연 황은영 배연일 안일권 채민기 채은희 장하나 천종오 박승규 김지예 조민혜 서희정 정우기 정화영 김미예 전남기 조용걸 임강빈 백현민 안일철 오욱진 김재욱 김주명 이영재 김도미 장자연 황미연 박은영 박재성 김영목 박재남 김광호 상희정 김경민 백재현 김기숙 임용순 김종익 이경희 이순자 김세중 우종순 김현희 임혜진 차 현 윤소인 현준배 한규현 이상환 최순연 이경미 김순화 손영태 문주선 이강혁 권오철 최영숙 이 호 최경환 신오상 김광식 윤종선 강성희 안복영 최정혜 김미숙 이유미 한정자 홍태호 홍태연 이현식 박시연 김제성 김영식 한희자 방효철 김종모 이홍선 이상환 최순연 이경미 김순화 손영태 문주선 이강혁 권오철 최영숙 이 호 최경환 신오상 주분진 류신희 이인주 김혜자 이인호 이규현 이봉우 경기호 이영옥 맹자현 윤일례 염동중 최경란 홍익표 박인호 김진규 이인숙 오흥인 백진경 나종수 주혜은 신광희 조응로 김민석 김인숙 최미혜 정만수 최승희 신동연 강인구 김동탁 김관수 임재득 정종훈 김연주 안기용 노재조 이수문 한옥현 이영하 장석봉 김낙영 최상선 이종규 김인환 이원희 장명근 감대환 이상언 박순철 이주한 이은희 장미련 김종운 이준희 김희남 김영철 이천우 정영희 김규홍 이중현 배소영 박찬숙

서울대불교학생회

안순애 박영석 조성진 서문건 김형석 김병일 박기수 김민성 곽기정 장우진 신영재 조홍래 김용선 장재남 금동민 김지훈 김도균 최지호 김윤재 김명기 한상진 일영화 전정구 김은호 남상현 박동조 박준규 김혜진 이중욱 배기훈 노석현 유진호 박원터 김세웅 조현욱 김준경 이용재 최재원 이봉우 이석재 윤희진 민대기 임규성 조현우 이창민 김기봉 하형철 김 준 김경도 김용호 이상민 양영철 이건우 이장래 최규현 이병서 정재윤 김영국 전승효 박승연 최규환 신동욱 은재윤 최승철 박천기 안홍우 이재광 정영경 정민기 김진용 이문희 채종득 장문성 이상규 이우욱 김석준 김무생 목지원 류재영 한재현 김지어 한준희 이정수 강소영 서종범 장성준 조성한 박선명 황혜아 서남철 이루내 원재경 김광호 예세민 이기연 최현중 전현민 이명철 나종연 이복원 서홍욱 최종상 신남경 장재걸 이군희 윤형근 오현수 김희관 김용신 신익수 김미정 김은진 이태호 김병무 신창욱 오창순 김상희 이남용 옥상대 권재중 김은희 황두기 천인숙 양희준 신효섭 고창진 이재열 배성호 이행규 이순형 최일승 이 축 엄은희 최종원 정수환 이정민 김정구 여영강 허정원 신상효 이상오 강호선 오동협 황희종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박수자 정찬주 김형영 김정구 정체봉 최혜란 정준흥 이도흥 정순옥 조영래 임평근 고수란 윤애자 남명애 정선순 현귀림 이지은 정덕실 박영조 김방희 한봉기 이정자 한은희 김갑용 김상심 강윤희 DavidLampka 김영식 최선아 남정우 남명순 박지숙 이강복 이은영 최순희 이보란 강인자 이정자 김나영 최지섭 김선환 최인화 김미영 전점식 김영구 박용숙

전북불교대학

박근영 성경선 안선미 원현희 김영미 안미라 안형자 김형님 최영란 김성민 신형남 박종수 송현순 최연실 이영순 김정희 김대근 이정혜 황인순 최기식 조양자 윤귀순 이향숙 곽종덕 장세현 전주영 정지혜 김준호 김정원 장연수 최진영 정광식 강준모 구민희 장지연 조선미 김영민 이경순 김미현 송영식 강준모 송선옥 김정희 이경애 김미경 이재원 이용필 박희수 김은아 염정섭 정철승 김 용 안희자 권오성 임은호 민승현 심수아 이지현 조성두 김득원 이자영 황태희 정중호 양희연 이해정 배나수 윤신원 이창은 권기수 김 용 한상호 이상미 최소영 박태춘 오민규 김민성 오경석 김정섭 조형주 최일환 조학수 이승우 선형렬 오장민 조효정 고동일 이상신 이근택 이병준 김민식 김은종 김기홍 정재인 조원범 이상준 정성기 김도형 박철호 김연규 이상협 이현선 임채석 김유아 김강희 정지형 최원익 안성준 기양석 윤희태 이동운 이성우 이태원 황규백 주성욱 이종범 이장훈 주윤철 김창훈 김창규 김민경 엄혜윤 임선규 이경애 곽종덕 장세현 전주영 정지혜 김정희 김대현 허 진 장갑봉 이강민 전제일 최경규 이재한 채희동 김보경 김원중 이지연 한태희 이규남 정상혁 장재규 유종철 여상훈 권준호 이규광 이승찬 이현숙 박정현 김정선 이상수 이상은 박재훈 김희수 이현주 최원재 전주영 이종석 이상준 연승익 송수연 김기성 김영은 윤귀옥 김정현 윤여성 이명남 심복자 박분이 이원자 김우석 한성민 노인영 조연심 최점례 이선자 정동철 류강현 정병조 오화정 이영무 박순실 이희용 박경학

운문사

김성환 이종선 최진원 송우익 박정화 강순덕 박정아 강정애 최무한 김복희 문석호 남종순 김재영 남기환 박영국 손남경 김영채 강성욱 서영준 윤민한 변영진 조철헌 연주암 박청일 박춘기 김열례 장재석 임현상 정대철 이개영 김완희 고정자 김민호 김지석 정순득 김종석 김용기 신묘희천 김영선 전신웅 조용락 권태준 조준균 조애경 윤혜련 박준호 노균석 이광훈 여세현 노인숙 차정석 방두식 원창서 김재덕 임장수 박종익 김종태 이지용 김기창 정성학 선현진 박영옥 김광식 정경화 양경순 김형숙 김현숙 차정석 박영옥 김광식 정경화 양경순 김형숙 김현숙 정지민 권성실 김영숙 송형숙 안재호 김성준 김종석 이문현 오철석 유부연 김용준 김경호 전병옥 정정자 김용화 최완철 이경희 박병완 김정길 김종석 이문현 오철석 유부연 김용준 김경호 전병옥 정정자 김용화 최완철 이애숙 박은필 송수용 김성숙 이주현 김명숙 이수일 이은근 김병국 이성근 김경남 이상헌 한준우 김경래 이원규 김정현 김경아 박준택 강병일 김연권 신영주 김상기 강지훈 김홍운 안동순 강종수 김정덕 한계석 김효영 이상훈 김정덕 안수잔 윤양현 고미숙 조윤경 백인성 안순천 전병후 전은석 김선구 박원일 천재훈 강학림 박세승 안종연 박경훈 윤현중 김상경 최동현 김진우 고병국 마을호 설충석 홍재환 임허은 김정수 김혜숙 김정호 명형택 경경화 김미경 천수영 박종하 박상호 지연정 서인석 문병철 조동용 김태연 임종훈 홍혜경 송부택 구본출 김상돈 신진석 강길후 홍도식 안현선 문소연 김기한 류형욱 황은미 이희자 민선영 김재화 강순영 최윤영 현재범 정혜영 김정태 김혜원 강숙영 김미영 안대심 박경환 이재원 이진우 임대문 김동준 안규남 고혜원 류세리 고현미 유정원 심선희 김갑종 박중권 김 관 박준범 장자순 이민수 고삼일 이영근 제갈윤승 한철호 이정희 최규남 김용환 이승현 이효덕 기자회 박희수 김재선 심대규 김찬용 최혜은 박경로 최열진 안대용 임병근 김영갑 곽 태 이지현 최지선 김미연 하연호 박병진 김무한 박병호 최미숙 이희정 주세웅 조상익 한경환 이상엽 최미숙 이희정 홍혁진 이동주 장윤석 이윤호 정병실 김수진 김진문 이송직 육도진 배영길 완성익 황경원 김갑숙 백주선 고권석 권희주 박남숙 경명찬 류재현 황병수 김건국 유진태 최영미 박경철 박혜경 이민우 김일호 류인석 황종태 유지민

서명자 명단 16~17면에 계속

중앙대

강분연 강현욱 정준영 박지은 길범진 박혜선 석용주 변상희 최순덕 김미경 우혜종 김인석 김세영 성기연 금승환 장정진 김향숙 권세진 강기식 이원욱 장석기 김무철 임동인 환련익 힘성종 김정인 남연익 김혜진 김태식 한종우 이준희 강수웅 강명진 오상관 이승민 김희대 신유미 방남걸 손병국 민세훈 오현웅 남승종 박상익 성호현 홍민정 이준배 예우성 전준식 박원석 유철준 안창순 황우용 김양희 김준일 이계종 신상범 구주영 조윤제 김동희 권순정 구성철 김기정 김주헌 김정호 김승희 최창원 안병진 김봉주 이영우 정수희 임현주 이문주 윤석오 김효건 안지호 이금호 윤유상 임정화 권기범 이환규 이 성 신동욱 김정현 김경아 박준택 강병일 김연권 신영주 강상기 강지훈 김홍운 안득호 김정주 김상기 김경남 이주현 김기정 박준형 김홍종 구민석 김종순 박주영 천수영 박종하 박상호 지연정 서인석 문병철 안수잔 윤양현 고미숙 조윤경 백인성 안순천 전병후 전은석 김선구 박원일 천재훈 강학림 박세승 안종연 박경훈 윤현중 김상경 최동현 김진우 고병국 마을호 설충석 홍재환 임허은 김정수 김혜숙 김정호 명형택 경경화 김미경 이 성 신동욱 김정현 김경아 박준택 강병일 김연권 신영주 강상기 강지훈 김홍운 안득호 김정주 김상기 김경남 이주현 김기정 박준형 김홍종 구민석 김종순 박주영 천수영 박종하 박상호 지연정 서인석 문병철 조동용 김태연 임종훈 홍혜경 송부택 구본출 김상돈 신진석 강길후 홍도식 안현선 문소연 김기한 류형욱 황은미 이희자 민선영 김재화 강순영 김미연 박혜선 석용주 변상희 최순덕 김미경 우혜종 김인석 김세영 성기연 금승환 장정진 김향숙 권세진 강기식 이원욱 장석기 김무철 임동인 환련익 힘성종 김정인 남연익 김혜진 김태식 한종우 이준희 강수웅 강명진 오상관 이승민 김희대 신유미 방남걸 손병국 민세훈 오현웅 남승종 박상익 성호현 홍민정 이준배 예우성 전준식 박원석 유철준 안창순 황우용 김양희 김준일 이계종 신상범 구주영 조윤제 김동희 권순정 구성철 김기정 김주헌 김정호 김승희 최창원 안병진 김봉주 이영우 정수희 임현주 이문주 윤석오 김효건 안지호 이금호 윤유상 임정화 권기범 이환규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④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선조들의 '찬란한 유산' 훼손없이 후손에게

양대승 임경숙 이진희 허인주 이홍주 김병술
정중혁 안승호 배민장 갑경원 양윤경 백은경
박봉기 이장원 지승구 문종득 한정현 전은경
류지인 박승영 이세웅 유기천 박형미 이석원
이영학 정운학 정경률 환영태 백성미 감혜한
이관우 황희연 이현정 최영주 김선미 김윤수
이성환 박주의 이진우 유재호 조은희 정일상
정은수 황희선 이성훈 이현숙 김필순 전태현
최은경 정형석 박봉영 신희경 성성제 허 환
손석호 민지경 김 육 김남석 이문상
조성희 허윤미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정미나 오현자
한혜정 장우진 조정아 정민영 김지혜 최윤진
홍주연 황승주 하민수 한희정 이혜정 김순정
이건주 김희진 천은미 공성애 민지현 장미애
이지영 전수윤 박은진 황현영 고현주 장인선
유별내 김소연 정영은 박소희 박효란 강태임
박민정 박정숙 한정은 남주미 나진숙 김영언
이미희 김지혜 박지윤 이지연 정은경 안주영
김미진 이지현 최지선 이윤진 류지명 강민희
조형진 송재숙 최산나 손하윤 양지선 김성미
이우미 이영지 장유정 최민숙 윤경옥 김은애
류기숙 이주현 강주연 박진아 성지연 김현영
박지호 강은주 유윤경 안아영 김영하 지경애
장승아 윤소영 임경희 박보희 김윤주 정주연
한지원 이서영 지윤정 유지원 김안영 유정연
최근자 남지혜 정혜윤 안수현 김지혜 김보람
석윤혜 복영수 오 윤 김지영 임미정 김선현
박정희 박소희 문효선 이재연 윤미광 조유진
허미숙 손희경 유선영 김민정 민혜지 김경진
우기현 김정현 이민정 배수연 조윤정 조계영
김희숙 박지은 김현주 김정은 문희정 김은주
현은경 한승주 이창은 윤재호 조은희 정일상
배준희 이현우 김지현 김보연 이승희 김혜연
이대신 이정호 오명조 양대승 홍민숙 황세라
유현모 이종진 이인혁 신정렬 감학영 안병희
강진만 박주호 정병근 신호윤 엄태용 고희규
왕은정 정종은 손동성 감영상 이진호 이학춘
정태원 노경범 이정영 도광진 정은성 전경민
정미경 이상문 최종선 박 현 김봉기 임찬성
김일권 김대범 이재호 최문석 안재명 김만복
신동남 연광석 서상호 송은주 한세영 이석현
박은혜 정승환 이상철 김호규 김태훈 박현주
박정환 강신남 손종대 서동진 임재우 남일우
김정원 윤명진 이형민 김동균 김태형 정영민
맹혁주 김호성 김종호 오경호 고세영 이상문
최용규 이태복 이현호 이영성 한정연 민경희
박완영 문종식 이유성 유태성 박정현 김영기
최현하 이인혁 정해원 김성인 김경근 조난열
이진용 송동섭 배재신 공병권 김동욱 유승렬
최대한 주지혁 김대홍 박준영 이충덕 서명성
김진규 김성훈 이승주 이학진 구정현 김규석
김지훈 이명석 유명희 김형준 김남중 김남중
김태형 김동경 이재영 정경양 우재균 임정관
박종민 노창희 윤재인 서문한 이지훈 백지희
김태영 최은숙 안하주 고선아 서은형 강은영
유경아 이희정 박수연 서정현 김혜진 오정희
김정화 박윤정 이유나 정다운 이지영 송해원
양소영 오혜선 양지연 김선경 김은정 이연경
이현주 배준희 이혜정 박용숙 조경미 박연주
이현주 이순현 박혜인 김수진 주정은 김유인
송주하 권오미 경정화 임혜원 이수현 구효영
이성하 박정숙 홍정이 손모철 임복순 김종태
조재우 최필성 신정남 강대남 이용근 노정임
정경현 김봉녀 임은이 정영자 임재필 전종우
구명노 신내철 장명섭 이순익 변영애 노창현
김석호 김다은 김준영 배귀영 최명호 강화수
박진영 손고운 김은영 박성욱 최영희 김성애
정정란 이경자 김두성 이우경 심혜숙 최환식
전태홍 홍종근 이복순 이묘택 손영준 박성희
감삼극 엄홍규 박 천 정백양 정순희 김동인
전애숙 이은우 이순남 박성원 이부년 김윤식
오지철 박근선 배귀일 이순이 박원정 백길례
강오남 정추향 김광수 이재삼 엄숙현 윤진은
송낙규 장신명 박재창 강유정 한명수 송호민
송선숙 김영숙 장영숙 최정순 이종국 이동규
임신빈 유명희 한소자 박시형 김경희 오백만
박지동 김택자 황희경 이춘기 이봉심 장은혜
경경호 최현주 최윤선 이현우 최영선 이재건
정낙주 김정숙 한정민 서민숙 이정현 이충순
이정낙 최주상 박영곤 한진환 김경희 오병호
김석민 송창기 하영자 이영애 박준성 권영원
이승우 조항연 정종록 박복례 채택석 노강식
송승재 최정희 구자본 김정수 김주옥 애인성
김순애 이정하 김영자 백영숙 이기수 이우권
김천수 김재현 이국재 김유정 김미숙 박인순
최점복 강경미 김순자 박동언 오점수 양말순
김명덕 장인평 박혜경 최태환 유광식 이명수
최숙자 나장연 임광택 임경모 김영주 남희숙
황은미 전원여 주 숙 김재연 서신교 조강은
전병견 정연조 정정복 양인석 손영순 오용순
김태정 강옥순 정순정 장애경 이인자 강재남
허귀영 박규상 공금순 김창용 정미화 오소영
김성수 박규언 박 훈 김정화 이영숙 이정선
채명숙 강보선 김금숙 전준하 정미영 소창권
유효강 장종수 정병하 조미한 최퀸석 김동기
이상훈 홍미순 박경란 박숙이 서우용 박명기
형연희 김완숙 서재용 한성현 박미순 이오선
강영록 이필용 강선숙 김인식 설동철 김학중
이형숙 김관섭 황의락 윤흥식 김종현 이재우
정경자 최남순 정승일 안은희 정은숙 이정우
박순덕 강건수 김태기 신광호 조범제 상 범
이성하 박정숙 홍정이 손모철 임복순 김종태
구희영 보광명 전인선 안준환 채미자 조원식
김혜진 정혜랑 박선아 박금자 박선미 김순이
진선영 배은미 김선미 이정란 박미숙 노명희
우은석 김인철 김수진 심대호 형순희 이찬우
정형선 조청익 박지민 김금숙 배현정 나동철
오영주 고영민 이순호 김현아 이영진 김영화
송남진 이병철 신순복 김미숙 안영선 장태식
김현아 김경훈 박경애 김용선 오미영 홍효신
주영옥 이희숙 손기수 이미한 강석필 이정화
김명자 나윤자 김상규 박승욱 이영숙 배진호
이종근 박승이 박주영 이희복 김지연 임기만
임재연 서석주 양선경 김남용 박명순 이충재
이상로 최지원 정종순 김소선 김지영 허은실
최형주 권희경 양진영 최현구 장경석 황보현
소준권 박현복 이상봉 오충렬 소희영 이재다
이선례 박현진 방극소 정상채 이현주 윤재항
이정민 박명규 최선일 이진숙 강미영 오준호
양진호 최병관 박상조 고지언 조정은 철영자
이순애 이종혁 이미숙 이효빈 심우한 맹명열
송경훈 허경열 정군표 하정희 유갑열 김운희
김원숙 이신권 나경수 정택수 정순덕 여영구
곽석원 박순국 박명선 박상종 정성모 최경재
송미숙 김도암 황화자 유자열 김용덕 구봉희
서선진 양기승 배명권 강은정 오용배 박옥심
김준길 박득채 이환호 김원우 조삼례 전영주
구영희 이종한 김종인 오덕수 이용안 전미호
김정태 이은정 안병교 손창호 황의문 경경신
강경남 서태원 최준영 남진욱 손은해 서태율
고순정 손용이 서은희 이주석 이봉새 최연주
선희준 김다기 고정식 전용현 박옥화 임경진
박정희 이원득 강미자 강혜옥 위현복 김경숙
손성호 이정희 김광두 강태연 강지아 소경희
노강식 박종영 김동호 정인식 이말자 김원길
장두우 김상전 이갈촉 손태일 진창훈 정미향
권용조 유재용 박민영 감숙연 김순남 김순매
김영옥 박연화 이승광 한분희 김병탑 이준건
허 현 채행배 이준희 이숙희 이우건 신순이
손경애 이국정 김선경 조우환 김혜숙 조이자
이혜심 박승종 김환식 박길균 김학주 김미정
박정도 강인원 이용환 양도선 조윤희 권기흥
박은경 김성악 이명희 김윤재 박재형 안지혜
구성정 김옥진 윤정아 김희정 박상국 김은순
김갑거 이준호 이길영 양윤경 모경숙 김승웅
오동호 신혜경 오현미 우미자 오영환 김선영
김미옥 김지은 이정승 이휘선 김성빈 황영일
환광숙 박연화 차현숙 안동원 김종태 오종규
박종호 박대환 오인숙 안자영 양원모 양철승
최영재 유영배 박성인 이충한 김태훈 김성식
장태연 김창성 정점순 성태식 박규현 임순식
오은정 서진영 설인천 이승재 박영수 김예분
김명선 장정자 김수인 양경순 황혜자 박예성
오성원 김현식 소기진 이재호 남승희 이광순
김주영 이정환 김환호 김주영 박재현 김미옥
한선희 서현정 고유기 양혜림 김영우 이지훈
강우석 김은남 이원랙 강명원 장순영 한혜진
공병철 이영진 서기순 김학곤 김차순 이수정
김 선 김승희 노성수 최미숙 김상희 선진숙
이명숙 김불곤 정경가 이정은 김종남 최정화
장은옥 양미정 손완철 김민구 양우석모 강경남
백유정 소인정 박지민 홍경희 정희경 박수희
안수진 이지혜 신대성 부유리 김태형 박정애
양윤기 소주호 이정숙 최현모 박현규 김은쭈
양소영 장태연 김주연 이정민 조금숙 권정순
박정숙 서정화 장영자 김두현 김선화 송창호
김민영 양성현 김현진 우규자 한혜진 황순아
강길원 박양희 조주남 김성현 강인실 조윤희
정원조 이순주 김정화 김순선 백은희 장재호
전금란 김수지 유승화 양양님 설오순 조주환
박지영 강한나 하성숙 김옥희 정상진 남은정
박정숙 조명훈 이민우 강미례 조준희 방일원
권여주 신현정 최성옥 정재근 김지영 한병희
강권모 이선희 장난희 김 경 진효영 이기영
김세일 박선향 정진창 윤옥자 장은체 박은정
삼태경 이춘근 황미선 정창순 박진옥 정현교
안승모 박영숙 김정님 최수경 김미선 오남경
합성룡 소정현 안귀옥 김수현 김성미 정규동
김경애 유영한 소준호 박선미 김규숙 김희준
조근성 박지진 장세운 방극순 이재우 안철희
이미숙 강경희 양태현 성대윤 안은영 박상준
이실노 오은하 박경선 양선분 조동현 허지욱
최선옥 윤옥희 김화자 이현창 이정은 임성준
이민규 이수영 김상현 강찬호 안현석 윤재성
최대환 장보경 한병수 김경민 박형광 정경태
감증훈 김장길 조진도 최정우 김성민 김수겸
문춘호 김경중 박재구 강창근 김종호 김창길
조진도 최정우 김성민 김수경 이수희 김옥상
박재구 강정호 안승진 박태우 이우태 장원재
김범석 박종석 양태우 김정안 안영표 박형준

남원불교대학

최영걸 윤장순 여상동
송시한 송종한 감재식
장명석 강운선 이재다
이영자 이난혼 차혜영

김연호

이명렬 정근수 박운혁 임향옥
임한숙 최승희 주경신 최윤희
이동선 니점숙 박정자
강형구 강현주 감여수
김경희 유광호 김덕기
강성수 이경숙 박정은
이경섭 김정은 이혜숙
김종호 김덕곤 김정은
이경섭 김정은 김덕기
이혜선 이미지 조병희
김기상 조병희 김은혁
김광섭 김은남 이경순
박정희 이은주 이정희
김정은 이경순 이혜숙
김정은 이경순 이혜숙
김정은 이경순 이혜숙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④

"경주 유물·시민권익 위해 제3노선 선택을"

정희정 서영란 양건석 박용우 이은영 곽은영
이종환 강소라 오경숙 송재욱 금병윤 김경인
이상준 박성헌 김형권 박재우 김상범 성상준
유송호 장현석 이병호 문종원 이동훈 임은정
김현호 신준균 정우식 김상협 남영희 임상균
최종현 이유진 정종필 이용준 박병열 권재천
장원렬 이민근 김정은 김헌수 황인건 오재근
이대현 하치수 최석일 주우식 노민우 황하은
윤주성 구경희 공선희 김주형 오정훈 민준홍
이재용 최영환 배진오 김치엽 김승원 양연숙
임수현 엄정식 이정원 박효근 김홍석 박재석
신종욱 성시우 공용식 성주용 이나연 이동환
김종철 조남진 차승호 정동근 이은화 성정호
강보성 전기승 김세빈 박진영 길보수 홍영준
이 철 길준일 이준호 박상훈 성경란 이수희
김경란 김성희 남명석 이지원 이주원 문장주
조영익 강민수 이강욱 윤교일 양정윤 이현주
유종만 강지나 이홍길 류정월 조현희 이덕소
오성기 이형철 김수현 김준현 유형석 신용필
강정현 안양숙 왕효성 이태해 이상준 이주환
우리는선우 이재봉 태욱경 이동환
윤계일 김광자 진운자
김정원 송병인 민병덕 이인규 박제원 고무종
김언묵 이재필 김경태 전애일 이명준 김종민
고지훈 김윤숙 박혜원 최만재 김혜숙 유원준
김욱순 신향란 김철호 신현순 변용남 김태완
김광숙 박종원 이선주 김용미 박종운 신미자
이인숙 김정자 강화평 서영부 김원노 진재훈
김성도 하선준 영정자 문부덕 황원규 박찬욱
이경숙 송지연 강란현 최영수 이홍복 조남원
유상규 강정희 정명자 송백호 홍종숙 정현식
임병조 주희정 정병읍 이치문 심재열 이석진
박성성 한인수 서태선 전해문 김숙자 김정호
김균형 오희정 오진숙 박경선 김미정 권민정
이규홍 박성진 류혜자 김광자 손정선 박귀달
강희배 김영신 장희윤 류미자 오은정 김민정
김장환 김태국 박영숙 김현주 김윤옥 유정열
조정호 유영은 문광호 박창희 김민순 주경희
우리는선우 김재환 국소원 김용택 김용각 이만옥 김용성
정내남 김용노 강민수 조한규 강민철 이길영
이병자 임정애 이소장 김영애 이경식 김재강
송혜경 김성균 이호영 송기현 투중학 박영길
장순덕 전 현 송정국 정원식 최동근 박세덕
백상창 권오경 김순옥 지명철 백주현 박승만
백승찰 윤재현 한종일 김선호 양정숙 강상수
최종훈 김태숙 김건용 정상환 김종호 김정호
황의대 신동준 노은옥 곽신영 권종원 이은영
정영근 박성천 김성수 선태국 차원용 김병애
이정한 이화연 이인자 김중수 박석진 선연옥
김영석 진창숙 강금옥 김명숙 이은경 강귀애
김은숙 윤대영 김애림 김종열 김은숙 김정호
심계원 최동규 박용서 김연상 선미자 김종열
박승만 김경미 김화자 선미자 박영희 이해정
한우식 조이주 조이주 심계원 유관희 이연석
정 철 노종욱 정태진 서정옥 류정환 하철민
박지용 이광호 이춘휘 반금자 전준순 이근우
백종석 김원식 김순찬 김영순 김중선 김성후
최경환 최병희 이범태 이성연 고종순 김귀중
김정호 윤상준 백종석 장현옥 민병국 오왕석
박상만 김배선 안병철 강진형 성복영 김길환
박영희 이보덕 이상인 최성민 김희순 최우경
김용신 박우경 최규완 전승수 권성일 정 린
박금호 송성규 엄정현 이의택 김성진 도용호
한승우 한정헌 전수민 정해원 안중철 기현석
홍승표 김영완 김상민 환운기 최완규 박진갑
박흥선 김용신 이준석 이수백 이승준 장태진 전해영
김명훈 박준규 이수백 이승준 장태진 전해영
국청회 김응렬 안유선 김명숙 김명순
박종곤 김화경 강신주 김해준
강용석 이동원 방경애 박종태 심재숙 김경자
김태기 임경주 표오희 박양종 정주현
보덕학회 정혜리 유시혁 정구련 김수연
김지수 이승원 원준섭 이희재 조병길 박창현
김경선 김혜연 류석하 김순창 임청배 조원영
김애진 김현정 한상갑 어금순 김홍숙
한국불교연구원 유영숙 정영진 구자국
박찬미 정세결 이우모
최복동 서성택 김상일 이금준 이경임 김홍선
이미숙 박후경 김정애 서동복 이미정 민관규
조미삼 조석희 김기화 김태순 임선찬 정재철
왕귀서 김정립 윤건호 배행택 윤영옥 이윤경
성하신 정호집 신경희 권인섭 박재숙 최은숙
최재리 이선희 이선영 박영철 이종배 임재혁
김종용 김택천 여희수 백농용 김옥구 권경희

불교TV 3차주식 60억 공모

12월1일부터 불자 1주갖기운동 추진…청약한도 없애

불교TV(사장 태응스님)가 내달 1일부터 제3차 주식공모를 실시한다.

불교TV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7층회의실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차 주식공모를 실시하여 1백20만주 60억원을 공모키로 했다.

내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실시될 3차 주식공모의 1주당 가격은 5천원이며 최저청약한도는 20주(10만원)다. 그간 2억원으로 한정했었던 최고 청약한도를 이번 주식공모에서는 없앴다.

이와함께 불교TV는 주식공모 기간 3달동안 '불자 1주 갖기운동'과 '시청자 확보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각 SO(지역방송국)에 부여되는 채널선택권제도로 시청률이 저조한 공급사의 방송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불교TV는 각 종단및 사찰단체를 직접 찾아 다니며 주식공모와 불교TV 시청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미 두차례의 주식공모를 통해 1백55억의 자본금과 1만8천명의 주주를 확보한 불교TV는 이번 주식공모 예상액이 확보되면 97년부터는 경영의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방송국을 현재의 53개에서 115개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시청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관리국 이호국장은 3차 주식공모를 앞두고 "막대한자금이 소요되는 불교영상포교의 미래를 위해 불자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며 "97년도까지는 불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BBS '미국속 한국불교' 제작

초청법회·휴먼다큐등 4개프로
제작팀 내달 2~11일 현지녹음


◇유병직 PD


◇이영준 PD

불교방송이 '미국속의 한국불교'(유병직, 이영준PD) 시리즈 3편과 공개방송 '샌프란시스코 교민과 함께' 등 4개프로를 현지에서 제작한다.

BBS가 준비중인 초청법회 '무애사상 생명사상'은 LA금강사 대정스님으로부터 미국속에서 한국불교의 정신을 통해 인종의 벽, 종교의 벽, 이념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듣는 시간이다. 특별좌담 '정법포교의 새날을 연다'에서는 불법홍포를 위해 교포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고국의 불교계에 바라는 제언 그리고 교포사회에 불교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 프로는 한인불자와 미국인불자들의 '초발심 그때'를 인서트로 꾸며 소개할 예정이다. 진행은 미주불교방송 유인무 보도국장이 맡는다.

휴먼다큐멘터리 'LA보현보살 제임스마의 도반만들기'는 LA형사반장이며 교포 2세불자인 마기영씨의 신행을 소개한다.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인연맺은 마기영씨는 지난해 난생처음 한국을 방문하고 선대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알고 놀란다. 불교가 미국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씻어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불교자원봉사회 '보현회'를 조직하여 도반맺기에 바쁜 그를 만난다. 또 내달 9일 샌프란시스코 데이빗드 심포니홀에서 교포위안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교민과 함께' 공개방송도 마련한다. 제작팀은 다음달 2일~11일까지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

지구촌 불교

'불교는 내면관조 실천사상' 강조

'미국여성 눈에 비친…' 서 동양적수행 권장

20세기를 살아가는 미국 여성이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여성기도모임'에 참가한 미국여성불자들의 논쟁을 각 장의 주제로 선정하여 편집한 〈미국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Buddhism Through American Women's Eyes)에서 편저자 아야케마(Ayya Khema)는 "미국문화와 불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여성불자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 미국여성이 기독교 계급 사회 속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진리(Dharma)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미국여성불자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종장에 이르러 아야케마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논쟁의 기저에 깔린 궁극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12장 '수도생활의 경험'(The Monastic Experience)에서 아야케마는 미국여성불자에게 이국적인 문화적 경험을 찾기보다는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불교에 귀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동양의 수행으로써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니르바나' 세계불자 이해 제각각

인터넷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에 등장

인터네트의 세계불자들은 니르바나(nirvana, 열반)를 매우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다.

'위험한 환상이지만 자유로운 실체다'

'그것은 찰나의 깨달음이다'

'단지 기다리고 준비할 뿐이지 그것을 위해 투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한 의혹을 그만두는 일이다'

최근 인터네트에서 제공되는 트리싸이클(Tricycle)의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에는 니르바나에 대한 이같이 다양한 개인적 정의가 등장하고 있다.

트리싸이클에 새로 마련된 '변하는 말-용어사전' 코너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불교적인 가르침과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좋은 코너다.

"日은 전쟁피해국가에 배상해야"

니와노 평화재단 세미나서 日종교인 주장

일본의 니와노(庭野)평화재단은 지난 16일 동경의 입정교성회 강당에서 '전후 50년, 남겨진 과제와 종교자의 역할-아시아의 전후문제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제에 이어 전후 50주년을 맞는 오늘날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아시아 전쟁피해자를 위한 보상문제 등 전후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교환됐다. 신일본종교단체연합회의 미즈노씨는 일본을 가해자로 간주 "일본이 아시아피해국가에게 배상문제를 포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화스님 법륜종 2세종정 취임

법륜종 제2세 종정에 일화스님이 취임했다.

법륜종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 대연회장에서 각 종단 스님 및 문도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 취임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신임종정 일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종도들이 애종심을 가지고 위상강화와 전법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화스님은 1940년 공주 마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충남종무원장등을 거쳐 법륜종 초대 총두원장을 역임했다.

진각회관 상량식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정사)은 지난 20일 오후1시 대구 대봉동 소재 진각회관 3층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진당 사감원장, 쌍용건설 김성호 이사를 비롯 종단 간부 및 대구지역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상량식에서 통리원장 락해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회관이 완공되면 지방불교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각종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총인원에서 종무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교육에서는 진기 49년도 업무평가와 진기50년도 업무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륜종 2세 종정 일화스님의 취임법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태고종 새스님 108명 탄생

태고종의 미래를 짊어질 새스님 1백8명이 탄생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19회 합동수계산림을 개설해 사미 81명, 사미니 27명 등 모두 1백8명의 스님에게 사미(니)계를 수계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종정 보성스님을 전계사로 승정 덕암스님을 교수사로 총무원장 서봉스님을 갈마사로 지난 20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전통불교의 식으로 거행됐다.

종정 보성스님은 수계법어를 통해 "오늘부터 세속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중생제도에 힘쓰며 청정한 신심을 닦아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암사는 대각국사 탄신 9백40주년을 기념하는 다례법요식을 만세루에서 봉행했다.

내년 24개사업 확정

태고종 21일 중앙이사회

(사)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이사회(이사장 서봉스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갖고 96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확정된 96년 사업계획은 △동방불교대 각종 학교인가 추진 등 24건이다.

한편 이날 확정한 96년도 사업계획안은 오는 28·2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71회 종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목탁소리

1백억 예산과 분담금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조계종 내년 예산이 역사상 최초로 1백억을 넘어섰다. 불과 2년전인 1994년도 예산이 3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라 아니할 수 없다.

예산의 4분의 1가량인 21%가 종책사업에 책정됐다. 종단 차원에서 적극 밀어줘야 할 종책사업에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종단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예산액만 보더라도 종단운영은 이제 소꿉장난처럼 주먹구구식은 될 수조차 없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종단발전을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잘 짜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뒷받침해줄 수입이 따라주어야만 일이 잘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내년 분담금예상 수입이 64억, 예산의 반이상이 분담금 수입으로 잡혀 있다. 과연 이렇게 배정된 분담금이 제때 잘 들어올 것인가. 현재로선 불안하다.

10월31일 현재 올해 분담금의 납입율은 일반분담금이 66%, 관람료 분담금이 53%, 특별분담금은 47%이다. 이 셋을 평균하면 54%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관광지에 소재하고 있는 B사를 비롯 대형 본사들인 H사 B사 등이 현재 종단의 거듭된 납부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미·체납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별 뾰족한 수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3일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종광스님은 사찰 관람료의 공금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늘 들어오는 관람료로 인해 포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에 신도관리등 사찰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질책한 스님은 "관람료 몇 푼 때문에 불교가 병든다면 차라리 관람료를 공금화하자"고 제안했다. 심지어 어떤 스님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람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

관람료를 비롯해 교계에 들어오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종단전체를 위한 목적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것이다.

1백억이 넘는 종단예산을 보고 많은 일을 하겠구나 하는 뿌듯함과 함께 걱정이 앞서는 것은 교계에 들어오는 돈이 '공금'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자리잡혀 있는가 하는 회의 때문이다.

방송가소식

새사장 연내 선임

BBS이사 간담회 가져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종하)는 지난 20일 이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결구도 양상을 지양하고 빠른시일 내 새사장을 선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형선이사가 "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정동호씨는 스님들이 반대하거나 만장일치가 아니면 사장직을 포기할 방침"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와관련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진흥원에서 정동호사장 건이 접수된만큼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수순"이라며 "올해내에는 새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구BBS 소식지 발간

불교대구방송추진위는 지난 11일 추진현황을 담은 소식지 '불교방송' 창간준비호를 발행했다.

20쪽 분량의 이 소식지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방송국설립 성금모금 내역을 소상히 공개했으며, 또한 지난 5월 29일 개국허가 이후 추진현황및 경과보고, 대구방송 설립의의 등을 실었다.

김장담가주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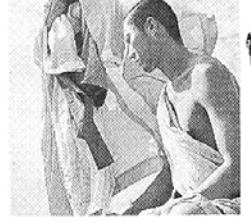
btn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은 지난 26일 경기도 시흥 송암동산을 방문하여 김장담가주기등 첫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자연예인 송년법회

btn은 오는 14일 오후 7시 마포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제2회 불자연예인 송년법회를 갖는다. 불자연예인의 단합과 불자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불자연예인 송년법회는 1부 법회 2부 만찬으로 진행될 예정.

구도영화 '유리' 촬영 끝

구도의 길을 걷는 구도승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는 영화 '유리'(양윤호감독)가 이



달초 촬영을 마치고 내년 2월 24일 개봉될 전망이다. '유리'는 박상륭씨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영화화한 것으로 기존의 종교영화가 화해나 사랑 혹은 선의 방법으로 종교적 메시지를 보였던 반면 정면대결의 수행으로 삶의 번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촛점이 맞춰졌다.

보리방송 문화대상에

HBS '인간기행-보리편'

보리방송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보리방송문화상 대상에 TV부문은 HBS 현대방송의 '인간기행-보리편'(조재훈PD)과 라디오부분은 BBS '고승열전'(박용기위원)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청주MBC '직지'(남윤성PD), BBS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김정학, 유진화PD)을 선정했다. 대상작인 '인간기행-보리편'은 지리산 한 암자 비구니스님 손에서 자라는 여섯살 동자승의 일상을 꾸민 휴먼드라마다. 시상식은 내달 1일 오후4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간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신국판 / 4,5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법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히온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는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값 5,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마음·마음·마음 (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참된 회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퇴직금 전액희사 구산장학회 설립 조 동 호 보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회향 당연"



전재산으로 장학회를 세운 어머니의 보시행을 본받아 정년퇴직금 전액을 불교장학금으로 내놓은 자랑스런 불자가 있다.

대를이어 장학회를 세운 이는 서울 법련사 신도 조동호(63.법명 연화성)보살.

조보살은 최근 41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하면서 받은 퇴직금 2억2천여만원 전액으로 구산장학회를 세웠다. 조보살이 세운 구산장학회는 어머니 무상각보살이 세운 불일장학회에 이어 송광사의 두번째 장학회이어서 더욱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40년 교단생활 무주상 보시"

"요즘들어 사회가 극단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물주의에 빠져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보시행을 강조했고 저도 얼마되지 않지만 사회에 다시 환원했을 뿐입니다."

"자식들도 모두 대학교육까지 마쳤고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이 충분하다"는 조보살은 "보시했다는 상(像)마저도 내세우지 말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에 송구스럽다"며 겸손해 한다.

조보살의 어머니 무상각보살은 양어머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양어머니로 모셨던 홀홀단신이다.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되어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푼도 개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 남의집 허드렛일부터 김밥장사, 여관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송광사 대소불사는 물론 불일장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불교문화재단을 세웠다. 지난 여름,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보시행으로 일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49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보살은 문득 어머니의 삶이 생각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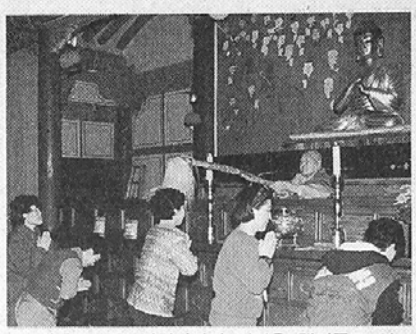
"어머니는 항상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어도 주었다 말하지 않는 자연의 보시를 강조했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다보니 큰돈이 없었으나 퇴직하면서 목돈이 생겨 보람있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법련사 현호스님을 찾았고 스님의 권유로 40여년전 불자의 길로 이끌었던 구산스님의 뜻을 기려 구산장학회를 설립키로 했다.

구산장학회는 내년 신학기부터 대학원생을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보살은 구산장학회는 액수가 적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자성이 청정해지면 사회가 청정해지고 나아가 불국토가 건설된다 는 구산스님의 가르침이 함께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준엽 기자



◇승찬스님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고 이어주는 것이 오계라며 계율을 지켜가자고 설법했다.

"5계지킴은 부처님인연 맺는 일"

조계총림방장 승찬스님 친견 1백여불자 동참

"내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어지러움이 없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혜라고 합니다. 그릇됨이 없으면 저절로 안정되고,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송광사 친견후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승찬스님은 본지 창간 1주년기념 '조계종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에 동참한 1백여 불자들에게 5계를 지키는 것이 불자의 근본이라는 법어를 내렸다.

승찬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 담긴 팔만대장경을 간추리면 계·정·혜 세가지"라고 강조하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굳게 맺어주고 이어주는 것은 5계라고 설했다.

이날 승찬스님의 법문을 들은 참석자들은 "매일 머리속으로 뇌이면서도 소홀히 한 불자의 길이 다시금 일깨워졌다"며 고마워했다.

5·18특별법 대선자금공개 촉구

실천승가회등 4개 종교단체 23일 기자회견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를 비롯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4개 교단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18 특별법제정과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4개교단은 "12·12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현 정부가 이번 비자금 사건마저 비호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영삼대통령도 92 대선비자금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앞에 참회하라"고 천명했다.

조계종 교무국장 연수

12월 1·2일 신흥사서

조계종 교구본사 교무국장과 지방승가대 강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교무국장 연수회가 12월 1·2일 양일간 속초 신흥사에서 개최된다.

첫날인 1일에는 최충옥교수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향적 교육부장 스님의 '95년도 연수의 의의와 평가 및 96년 연수에 대하여' 강의와 내년 연수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게된다.

2일에는 교육원장 운선스님의 내년도 교육원 사업 전반에 대한 특강이 실시된다.

'청소년문제' 세미나

불교사상연, 내달 3일

불교사상연구원(원장 황성기)은 오는 12월3일 오전10시 수원 대승원에서 '청소년문제와 불교계의 과제' 세미나를 열고 '불교청소년의 해'를 홍보한다.

현직 교법사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수산스님(대승원 주지)의 기조연설과 우인보 교법사(동대부중),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 김영민 자원봉사회장, 이학송 교법사(광동여고)의 논문 4편이 발표된다.

서운스님 다비식 원로회의장 엄수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이목당 서운(二木堂 瑞雲)대종사(전 등사 조실)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19일 황악산 직지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원로회 의장 혜암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영결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영결법요, 행장소개, 육성법음, 영결사, 종정스님 법어(성수스님 대독), 조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신도회장에 정치인 고려 안해"

월주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새로 결성될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자격에 대해 정치인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23일 총무원장 취임 1주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앙신도회장은 신심있고 능력있으며 청렴한 불자로서 기업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창시민불교문학상 수상자 결정

봉사상—승욱스님
문학상—이월수씨
예술상—권영호씨
언론상—김병달씨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스님)가 불교와 향토문화창달에 공로가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는 '마창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마창불교연은 지난 23일 제5회 시민불교문화상수상자로 봉사상—강승욱스님(고성 청련암 주지), 예술상—권영호교수(경남대 미술교육과), 문학상—이월수(경남신문 문화부장), 언론상—김병달 PD(KBS창원총국)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사상으로 선정된 강승욱스님은 24년전부터 17명의 집없는 아이들을 키우며 자비행을 펼쳐왔다. 권영호교수는 금년 미술의해를 맞아 마산미술 50년전을 기획하고 돌섬비엔나레를 주관한 공로가 인정되어 예술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문학상을 받게될 이월수부장은 60년 시 〈바위〉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지역문학발전에 힘써왔으며 언론상 수상자 김병달 PD는 93년 '가야불교'와 95년 '다시보는 경남—해인사' 편을 제작해 바른 불교 알리는 일에 앞장서왔다.

한편 마창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은 12월1일 창원 캔버라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2백만원과 상패, 기념품이 증정된다.

포교사 303명 탄생

조계종, 첫 고시 40% 합격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이 지난달 29일 전국 6개지역에서 실시한 첫 포교사 실시에서 303명의 포교사가 탄생했다.

이번 고시에는 총 7백46명이 지원, 40% 합격율을 나타냈다. 최고 득점자는 이성형(부산 해원불교대)·윤정배씨(부산 동국불교대)로 필기와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관련인터뷰 4면〉

범어사 주지에 성오스님 선출

산중총회 3번 휴회 진통끝 만장일치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는 지난 20일 휴휴정사에서 재적스님 1백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개최, 성오스님(운수사 주지)을 차기 주지스님으로 추천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11인위원회를 구성, 성오스님을 만장일치로 후임주지로 추천한 뒤 참석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산중총회는 벽파, 대정, 홍교, 지형스님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위원들이 부주지 이하 7직스님들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문중화합과 원활한 종무집행을 위해 각 계파대표, 문중중진, 종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종무위원과 비상임 종무위원으로 구성된 종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보강을 결의했다.

한편 새 주지로 추대된 성오스님은 지난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86년 범어사 교무국장을 역임하고 지금까지 운수사 주지로 정진해 왔다. 〈부산=박병근 기자〉

"강의법 다양화 필요"

조계종 연수강사 간담회

지난 1년간 열린 조계종 중진 및 각 교구 본말사 주지 연수에서 연수회 목표설정이 분명하고 좀더 불교계 당면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7일 녹수청산에서 95년도 연수회 강사 간담회를 갖고 △교재내용의 충실 △세미나 등의 다양한 강의기법 도입 △교육후 평가체계 마련 △시청각시설 갖추어진 연수장 마련등 연수회의 내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서운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19일 직지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했다.

자원봉사지원법 무산 위기

정기국회서 심의 보류

자원봉사의 법적민적 확산을 위해 제정키로 했던 '공익자원봉사 지원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년전부터 준비해온 이 법안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시의 자원봉사활용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자체가 보류된 것.

이에따라 조만간 법안소위가 재구성되지 못할 경우 동 법안은 국회통과가 무산돼 결국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지원법의 취지가 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인만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빠른 심의와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새불교 전국승가회 내달 1일 창립법회

새로운 승가상 확립으로 불교중흥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승가단체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창립법회가 오는 12월1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봉행된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는 앞으로 △소모임 활성화 △연구·조사사업 △정기 학술·수련행사 △자료발간 △대외 연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인천사암련, 강화·김포·검단 통합

마니산 개명 반대·복지관운영등 나서기로

강화 김포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면서 이지역 사찰도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김선일)산하로 통합됐다.

인천사암연합회는 지난 19일 인천시민회관에서 강화 김포 검단통합 기념법회 및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펼쳤다.

방지하스님을 비롯 지역기관장 신도등 7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선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불교의 결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화 마니산 지명 개명반대, 복지관운영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2부 불우이웃돕기행사에서 김태곤씨등 불자가수가 출연해 1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인천사암연은 이 기금을 인천지역 보호관찰대상자와 철거민노인돕기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사암연은 강화 김포 검단지역 통합으로 50개사찰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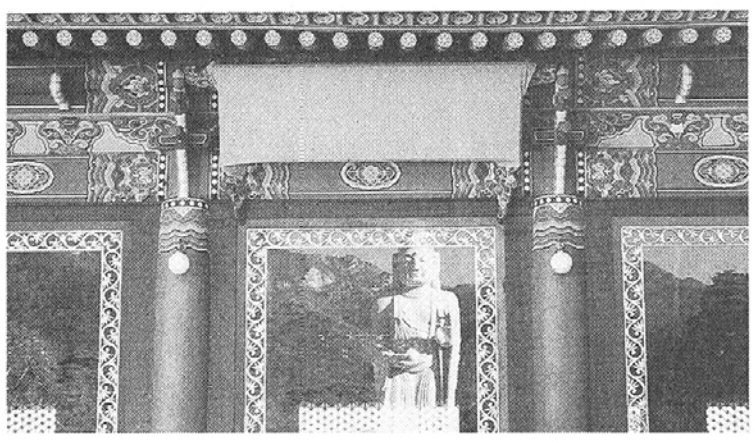
전불련 교육수련회

내달 2~3일 선학원서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선학원에서 '전불련 제2차 교육수련회'를 개최한다.

'현시기 불교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강서·양천 지민회 우장산 지키기활동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와 경남 진주의 6·27지방선거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백남석법사의 '불교수행과 운동적'을 주제로 하는 강연에 이어 제주불교정토 청년회의 현시기 불교운동의 사상, 신행관 혁신을 위하여란 발표회도 갖는다.



"부끄러운 현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앞 노태우 前대통령 친필현판 '통일기원대전'이 지난 18일 회색천으로 가려졌다. 5계를 범한 자의 현판을 청정도량에 걸 수 없다는 불자들의 항의를 동화사측이 받아들여 철거에 앞서 천으로 가린 것. 지난 17일 동화사는 대중회의를 열고 일단 천으로 현판을 가린 다음 승가본연의 입장에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한뒤 완전철거 또는 현판 아랫부분에 새겨진 각인 삭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화사=이윤호 기자〉

울산 경불련 내달 1일 창립

지역단위론 최초

울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준비원장 유관희, 이하 경불련)이 창립된다.

만인공존, 만물공생, 민족정기확립과 보살행을 실천이념으로 하는 울산 경불련은 12월1일 오후7시 울산 남구 소재 정토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출범한다.

창립에 앞서 유관희창립준비원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울산 경불련은 앞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보살사상을 바탕으로 불국토 건설과 사회정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무적사 위문법회

경남향승단 해인사지단

경남향승단 해인사지단(지단장 본각스님)은 지난 19일 20일 양일간 전방부대 호국 무적사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혹한기를 앞두고 전방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마음을 전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위문법회에는 향승단소속 스님 30여명이 동참했다.

향승단은 내무반을 개조해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국무적사에서 법회를 갖고 법당창건불사에 적극동참키로 했다.

동대부고·조계사 결연

동국대부속고등학교(교장 김정환)는 오는 30일 조계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동대부고는 이번 자매결연식을 계기로 다양한 신행활동을 전개, 학원 포교의 방법과 방향을 재진단한다.

마곡·수덕박물관 정부 10억씩 지원

요구금액 절반수준 내년 예산 편성…증액 절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성보박물관 건립에 각각 10억원씩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현재의 종무소 자리에 성보박물관을 세울 계획인 마곡사(주지 철웅)는 총 건립금이 40억중 10억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곡사 한 관계자는 "최근 충남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성보박물관 지원금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금액은 국고와 충남도비가 합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마곡사는 지하 1백50평 지상 1백50평 규모의 박물관을 설립, 사찰소유 문화재들을 일괄 전시 보존할 계획이다.

이미 성보박물관 건립을 진행중에 있는 수덕사(주지 법장)도 "국비 5억 군비와 도비 5억을 합친 10억의 지원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찰의 성보박물관 지원금은 민족적 문화사업으로서 애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어서 97년까지 계속 지원이 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 서울대회 실무자 회의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제2차 서울대회 준비를 위한 연락위원 실무자회의가 오는 2~5일 서울 워커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실무자회의의 한국측은 수석대표 지하스님(조계종 종회의원)과 일공 법종 시현 자월 도원 덕혜정사등 7인, 일본은 小林隆彰(한중일 불교우호회의 이사장)등 7인, 중국에서는 다오쑤렌(중국불교협회 부회장)등 6인이 참석한다.

'장애인 세상보기' 행사

연화복지회, 전등사서 봉행

연화복지회(회장 해성스님)는 지난 13일 장애인 단체인 함께걸음의 요청을 받아 '장애인 세상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강화도 전등사 야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증장애인 8명과 택시기사불자모임인 법륜회(회장 김장희) 회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강진 성지순례

부산불교청년연합회

부산 불교청년연합회(회장 윤대일)는 지난 18, 19일 양일간 전남 해남과 강진일대에서 성지순례 및 역사기행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지회를 포함 14개지회 1백여 청년불자가 동참한 이번 순례는 미황사, 백련사, 다산초당 등을 찾아 역사를 통해 신심을 돋구었다.

3개월마다 열리는 부불청의 다음 순례법회는 충남 수덕사와 한용운스님 생가, 독립기념관이다.

대구지사 053)426-2779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법원조정안에 이의신청 제기

범어사·경동건설 '아파트문제' 해결 난망

범어사 앞 경동아파트 건립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대표 김재진) 양측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강제조정안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달 31일 '설계고도 1백98m를 초과하는 건축의 불가'와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사적인 실력행사 금지'를 경동건설과 범어사 양측에 각각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자연속의 시간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기쁨과 슬픔이 똑같은 아름다움임을 알고…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든 소중함과 통한다. 아름다움이란 사람에게 애틋한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인생 70이라 말하는 그 한 생에는 짧은 것 같으면서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한 생애라는 긴 여로에서 우리는 온갖 풍경을 만나고 숱한 사건과 부딪힌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시련 고난과 절망을 수 없이 경험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한 생애를 마감한다. 수 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열망의 힘이다.

삶을 향한 끝없는 소망은 인간이 지닌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아름다움이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아름다움은 우리를 손짓한다. 가장 슬픈 시간의 장소에서도 가장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도 아름다움 만큼은 우리를 지킨다. 황혼의 벌판을 달려가던 완행열차,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을 싣고 떠나는 기차의 뒷모습마저 아름다울 때가 있다.

돌이켜 보면 가질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잃어야 했던 것 떠나야 했던 것 그것들이 나를 키우고 나를 정한하게 걸어가게 한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싶다.

현재의 삶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현재의 만남의 풍경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를 기다려줄 것인가. 기차나 버스는 결코 떠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돌아오기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 바람 몰아치는 날 창을 열고 생각해 본다. 더 신선한 새벽 더 빛나는 햇살 그것들이 마련되기 위하여 천둥이 치고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들 삶의 한 모습과도 같다.

아름답지 않은가. 진실로 아름답지 않은가. 가까이에서 더 먼곳 더 먼곳에서 가까이 교차하는 모든 빛과 소리와 밝음과 어둠이 정녕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가.

서영석 〈동양화가〉

주부신행담

무 상 ㊾

'시험을 잘 보았든 못 보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일단 치렀으니 홀가분하다.'

학창시절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 항상 떠 올렸던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아니 홀가분한 것은 그때와 같지만 정말 결과 만큼은 좋게 나타나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공인중개사라는 일을 발견했고 자격증 취득고시가 겨년으로 있다는 것을 안것도 불과 3개월 전이다.

남들이 2년씩 해온 공부를 나는 3개월간 매달렸고 자금은 1차에만 합격하자는 희망을 갖고있다.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것은 하나뿐에 없는 아들에 대한 부양대책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이후 찾아야할 또다른 일과 가장으로서 생업으로 택한 돌파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6개월은 내게 참으로 엄청난 시간이었다. 35년이라는 짧은 인연을 이생에서 지낸 남편을 보내고 싶어 무엇인지 또한 그에게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짓눌려 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받아 그 기간밖에 숨쉴 수 없는 그의 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마음 속에서 그를 떨쳐 보내라는 주위분들의 충고도 있었지만 미수를 바라보는 친정어머니께서 내게 보내는 끝없는 측은함이 감당키 어려웠고, 죄송스러움에 그를 잊은 척 행동했다. 사실 장례이후 한번도 친정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적이 없었고 철없는 네살박이 아들앞에서조차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편해보인다. 형제 친척들이 다들 그가 잠시 외국이라도 나가있는 듯 일상에 충실하고 있다. 나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안으로 무상이라는 의미를 더 높이 쌓았다.

특히 남편에게 새어머니인 시어머니께서 시시는 법에서도 내가 어찌 살아야했다는 설계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기간동안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었고 지금의 내 삶을 이끌어주는 탄탄한 버팀이 되고 있음에 감사한다.

친정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이시다. 신심도 장하시지만 인생사 이치를 늘 부처님가르침에서 찾고 계신 분이다. 그저 내가족의 복만 구하는 적어도 성숙하지 못한 불자가 아니란 뜻이다. 장녀인 내가 고교 2학년때 아버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1남2녀의 우리들을 길러오셨다. 빠듯한 살림에도 음력 초하루면 절에 가 부처님께 공양올렸고 기도하셨다.

나는 어머님의 신앙심 속에 아주 자연스레 불교를 받아들였고 대학에 들어가 비로소 신인노릇을 할 즈음에는 불교계 간행물들을 구독해 보기도하고 법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학업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던 대학친구 덕분에 주안 용화선원에서 매월 송담큰스님법문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어떤 이들은 내 모습에서 '불교적 냄새'가 풍긴다고 얘기한다. 평소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별달리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내 성격이 그렇게 보였겠지만, 실제 그당시는 내 얼굴이 무척 밝아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내 신심은 솔직히 희박했고 다만 불교정서가 부담없이 좋았었다. 그래서 청년회니 대학생회니 하는 조직활동은 하지 않았다. 조용히 법문듣고 주위의 불교책자나 간행물들을 살피는 소극적인 믿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서 일했다. 넬러일을 보는데 당시 내가 근무했던 상봉동에서 유지로 사업하시는 시아버님이 고객이셨다. 매일 들르시다시피 하셨던 시아버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1년연하의 남편을 만났다. 장남인 내 남편을 분신처럼 더 각별하게 여기시던 아버님은 며느리감을 직접 고르시겠다고 아들과 굳게 약속을 하셨단다. 나는 다른 여자들 처럼 그저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아버님 마음에 쏙 든 아들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렇게 결혼한 것이 86년 일이다.

남편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국민학생 시절부터 지금의 어머니를 맞은 고교 3학년때까지 홀아버님의 손에서 컸다. 시장을 보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챙겨주신 것도 아버님이셨다. 위로 누님이 계셨지만 손수 일일이 보살펴야 마음이 편하신 아버님의 자식 사랑방식으로 남편은 아버님과는 '진한' 부자지간의 정을 나누며 성장했다.

두사람은 인간적으로 서로를 너무도 좋아했다. 우리 신혼 살림집은 아버님이 평소 쓰신 서예작품을 6점이나 걸어둘 정도로 아버님의 숨결이 배어있었다.

이 두 자 〈불암사 신도〉

35년이란 짧은 인연을 이생에서 지낸 남편을 저승으로 보낸후 나는 그의 업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KASIBHARADVGASUTTA
(바라드바자경)

♦ So it was heard by me : At one time Bhagavat dwe:t in Magadha at Dakkhinagiri in the Brahmana village Ekanala. And at that time the Brahmana Kasibharadvaga's five hundred ploughs were tied (to the yokes) in the sowing season. Then Bhagavat, in the morning, having put on his raiment and taken his bowl and robes, went to the place where the Brahmana Kasibharadcaga's work (was going on). At that time the Brahmana Kasibharadvaga's distribution of food took place. Then bhagavat went to the place where the distribution of food took place, and having gone there, he stood apart.

The Brahmana Kasibharadvaga saw Bhagavat standing there to get alms, and having seen him, he said this to Bhagavat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⑰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지금의 인도 라즈기르)의 남쪽 산기슭에 있는 한 마을에 계셨다.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씨를 뿌리려고 오백자루의 쟁기를 소에 매었다. 그때 스승은 아침밥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 밥그릇을 들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드바자에게로 갔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라드바자는 일군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스승도 음식을 나눠 주는 곳에 가서 앉에 섰다.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음식을 얻기 위해 밥그릇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바라드바자는 이렇게 말했다.

*dwelt (dwell의 과거분사형) 거주하다.
*raiment (=clothing 구어체) 옷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입맛을 따라 고를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경기 파주군 장단면 마장2리 180-18
• 전화:0348-945-2233 / 팩스: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㊶

언제 천둥 쳤느냐고 우기는 귀머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마당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렵고 모이는 곳마다엔 우열을 가늠하는 힘 겨루기가 전개된다. 우리는 마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저잣거리의 상인과 진배 없이 하루하루 '나'라는 상품을 열심히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주마등처럼 변화하는 세상에선 싫든 좋든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과목의 수능시험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경쟁마당이 아니라 공존·공생이 아주 자연스러운 평등의 장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원리의 화현(나툼)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은—무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도록 오직 자성 또는 불성이 인연따라 구르는 형태일 뿐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구분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의 형식에는 잘나고 못난 구별이 없고 더하고 덜한 분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분별은 오직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사고가 빚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과 모든 상대를 오직 생명원리의 동등한 나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순간부터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나 자신'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에 있어서 똑같다는데 어디에다 우열의 딱지를 붙일 것이며, 본질 면에서 나와 상대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잘나고 못난 표지를 붙일 것인지 가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의 눈을 닮아 자신이 비어 있음을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점차 놓여나게 될 것이며 아집·아만·아상·욕심 따위에서 점차 자유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세속일에 전념하면서도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진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위 스트레스 없는 삶도 가능해질 것이다.

내세울 게 없어야 벗어난다. 내세울 게 있다면 벗어날 수 없다. 아니, 내세울 게 없다면 벗어났느니 벗어나지 못했느니 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내세울 게 없을 때 도가 있다고 하셨다. 선사들은 놓고가는 삶, 방하착의 삶을 가르쳤다. 놓을 그 무엇이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평등하니 내세울 게 없는데도 내것이라고 할 그 무엇이 있는양 잔뜩 움켜쥐려고만 하니까 놓으라고 한 것이다.

만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해도 평등하니까—근본에 있어서는 오직 비어 있을일 뿐이니까 내가 했다는 아상을 붙일 대가 없다. 아무리 붙이려 해도 생명의 근본원리엔 점착이 불가능하다. 붙일 게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업장 놀음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는 일마다, 처하는 곳곳마다, '나'라는 딱지를 붙여 놓는다. 업장을 쌓아 놓는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업장 쌓기로 보낸다.

앞으로 가라니까 한사코 뒤로만 가고 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힘들여 일러 주었는데도 우리는 언제 천둥쳤느냐고 우기는 귀머거리로 살고 있는 셈이다.

협찬 : 김복수·강우진